15일 Market Index
코스피 2666.84 (-51.92)
코스닥 880.46 (-7.06)
금리(국고채 3년) 3.308 (-0.121)
환율(원·달러) 1330.50 (+12.90)

metro 경제

수명 2년 늘자
암보험료 오르고
종신보험료 내린다
02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中 조선업 견제 나선 美… K-조선, 반사이익 기대감

美 전미철강노조 등 5개 노조
中 조선업 부조리 관행 조사 청원
바이든, 대선 앞두고 응할 가능성
국내업계 점유율 확대 기회 요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조선업계로 옮겨가고 있다. /유토이미지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조선업계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인 중국 조선업계를 견제할 경우 한국 조선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전미철강노조(USW) 등 5개 노조로부터 해양·물류·조선 부문에서 중국의 부조리한 정책과 관행을 조사해 달라는 청원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이후 중국 정부가 조선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고, 조선·해운 등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인 뒤 미국 선박과 해운사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들은 "중국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 정책, 관행을 통해 해양·물류·조선 부문에서 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해당 산업분야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삼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조선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USTR이 미국 항구에 있는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미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선박에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 조치, 미국 내 상선 건조를 촉진하기 위한 조선업 지원책 등도 요구했다.

USTR은 무역대상국 정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규정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청원 접수 후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선을 위해 노동조합의 표심을 잡아야 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노조의 요구에 따라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친노조 전략을 내세우기 위해 이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에도 해당 청원이 접수된 것은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관점도 제기된다. 미 해군 정보국(ONI)에 따르면 중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은 약 2325만GT(총톤수)인 반면 미국은 10만GT가 안 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지원을 발판 삼아 세계 조선업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건조 실적과 기술력이 부족하던 시장 초기에 해외 선주들에게 정책금융을 지원하거나, 중국 조선소 배를 건조할 경우 저리로 정책 자금을 빌려주는 등 자국의 선박 발주를 지원해왔다.

중국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미·중 무역 갈등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한국 조선소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중국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 조선사의 강점인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국내 조선사에게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사를 제재할 경우 중국 조선사의 원가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으며, 한국 조선사의 슬롯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라며 "미국 관련 수송이 증가할 가스선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국 조선사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지난해 기준 중국 조선사의 선박 인도량은 글로벌 조선사 전체 인도량 중 50.9%를 차지했고 한국과 일본은 각각 28.4%, 15.4%로 뒤를 이었다. 미국 조선사의 인도량은 0.1%에 불과했다. 만일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 업체들을 제재해 중국으로의 선박 발주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미국 조선소들이 감소된 발주량을 모두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글로벌 2위인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조선소에 이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해운 산업이 GDP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라며 "이번 청원을 통해 중국으로 제재가 가해진다면 한국 조선사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은 있겠으나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와 함께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동반자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들의 야심찬 도전을 기다립니다.

2002년 월드컵의 함성과 함께 태어난 '메트로신문'은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언'에 이어 2018년 3월 유료신문 '메트로경제'의 동시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경제정보를 제공하면서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취재경위를 자율 공시하는 '기사이력 공시제도'를 국내 언론사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AI(인공지능) 앵커를 활용한 동영상, yap TV와 제휴를 통한 서울 시내버스 내 뉴스 제공 등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과 융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2년 역사의 메트로와 함께 미디어 역사를 새로 쓸 인재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부문
① 신입 취재기자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모집내용
1. 신입 취재기자
①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취재역량평가
(기사 작성 및 평가)
▲ 3차 :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② 모집인원 : 00명
③ 응시자격
㉠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4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
④ 우대사항
㉠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2면에 계속〉

metro

의료재앙 분수령… 2000명 규모에 정부-교수 강대강 대치

20개 의과대학 교수 집단사직 D-7
"2000명 증원 풀어야 협의 나설 것"
정부 "물러서지 않겠다" 입장 고수

17일 오전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됐다. 교수들은 정부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포기해야만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의료 개혁을 위해선 꼭 필요한 규모라며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관련기사 2면〉

이런 가운데 전공의 없는 병원에 교수들 마저 떠나면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란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다.

◆ '2000명' 포기해야 협의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20곳의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비대위 총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25일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 제출을 해야하는 마지막 날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권으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교수들의 사직은 전공의 면허정지와 의대생 집단 유급 만큼은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비대위 총회에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국립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 20개 의대가 참석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의료시스템이 장기간 지속되는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에 의사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풀고 협의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여 '이종섭 귀국-황상무 사퇴' 압박에 대응 부심
▲ 민주 총선 후보자 한자리에… 이재명 "우리는 국민승리의 도구" /사진 뉴시스

▲ 정우택 낙천 후폭풍… 충북지역 네거티브 여론 '위험수위'
▲ 행안부, 5조4000억원 규모 공유재산 발굴

▲ 국힘, 양산을 김태호 "24시간 달빛어린이집 지정 추진" /사진 뉴시스
▲ '尹허위보도' 수사 200일 … 검찰 칼끝 어디로

수명 2년 늘었다… 내달 암보험료 10% ↑, 종신보험료는 ↓

경험생명표 발표에 보험료 조정
男 평균수명 86.3세, 女 90.7세로
65세 기대여명 각각 2.3년, 1.9년↑

수명 연장에 의료 이용량 늘어나
건강·연금보험 보험료 인상 전망

4월 암보험 보험료가 10% 인상되고 종신보험 보험료는 인하될 전망이다. /유토이미지

오는 4월부터 암보험 보험료가 10%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평균수명 증가로 의료비용이 상승해서다. 반면, 사망률 감소에 따라 종신보험 보험료는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작년 12월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경험생명표에 따라 다음 달 보험료를 조정한다.

경험생명표는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율의 집합이다. 보험사의 통계를 기초로 사망, 암 발생, 수술 등에 대해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통상 3~5년 주기로 개정한다.

특히 이번 제10회 경험생명표는 평균수명 2년 연장 도입이 핵심으로 꼽힌다. 평균 수명이 올라가면 보험사는 더 오랫동안 보장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개정된 제10회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국내 남성 평균 수명은 86.3세, 여성은 90.7세로 5년 전보다 각각 2.8년, 2.2년 늘어났다. 65세 기대여명은 남자 23.7년, 여자 27.1년으로 제9회 경험생명표보다 각각 2.3년, 1.9년 증가했다.

보험개발원은 "의료기술의 발달 및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평균수명도 늘어난 것"이라며 "평균수명 및 고연령의 기대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이후 노후 의료비 또는 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인상될 전망이다. 평균수명 증가로 의료비용, 수술 인원, 수술 건수는 매년 증가해서다.

건강보험은 수명 연장에 따라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의료 이용량 늘어나는 등의 영향으로 보험료가 오른다.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수명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동일한 연금액을 받기 위해선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난다.

반면 이번 경험생명표 개정으로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사망률 감소에 따라 보험사가 일정 기간 내 지급해야 할 사망보험금 역시 줄어들면서 보험료를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9회 경험생명표 적용 당시 평균 수명 남성 2.1세, 여성 1.8세 늘면서 종신보험 보험료는 평균 3.8% 인하된 바 있다.

보험업계는 암보험, 연금보험 등은 개정 전에 가입하고 종신보험은 개정된 이후인 다음 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반응이다. 개정 보험료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내 특약들도 발생률 감소에 따라 20% 정도의 보험료 감소가 예상된다"며 "보험계약 시 소비자가 보험료 인상·인하를 체감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1면 '메트로경제와 함께'서 계속

■ **제출서류**
① 회사 입사지원서 1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www.metroseoul.co.kr, 카페〈아랑〉, 구인사이트(잡코리아, 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②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원서접수**
① 기 간 : 2024년 2월 29일(목) ~ 2024년 3월 29일(금)
② 접수방법 :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접수(3월 29일 도착분)채용 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접수 가능
③ 접수장소 :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옥인동)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 **채용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년 4월 3일(수)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취재역량 평가시험
① 일시 : 2024년 4월 9일(화) 10시 ~ 16시 40분
② 장소 : 서울시청 지하 2층 시민청 워크숍룸
③ 내용 : 공지하는 취재 주제로 기사 작성하여 제출

·면접(실무 면접, 임원 면접)
① 일자 : 2024년 4월 11일(목)~12일(금)
② 장소 :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③ 기타 :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24년 4월 17일(수)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 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문의 사항은 당사 경영지원실로 연락바랍니다. ☎ 02-721-9851

수학 1등급 대비 의대정원, 수도권 '6.3배' 지방은 '1.7배'

의대증원 1600명 비수도권 배분땐
비수도권 수학 1등급 학생 3346명
의대정원은 3623명… 277명 많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위치한 한 의대 입시 전문 학원 앞에 의대 준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중 1600명을 비수도권 의대에 배분할 경우 비수도권대 기준 의대 정원이 비수도권에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영역 1등급을 받은 학생 수보다 많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수도권대와 비수도권대의 의대 경쟁률이 3배 이상 차이 나는 상황에서 앞으로 경쟁률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 수학 1등급을 받은 고3 인원과 의대 정원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수도권 고교 3학년 중 수학 1등급을 받은 인원은 6277명으로 수도권대학 12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 정원(993명)의 6.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고3 학생은 3346명으로, 비수도권 27개 의대 정원(2023명)의 1.7배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권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고3 학생은 2993명으로, 경인권 3개 의대 정원인 129명의 23.2배에 달했다. 호남권은 수학 1등급 709명으로 호남권 4개 의대 모집정원 485명 대비 1.5배 ▲충청권 수학 1등급 771명, 7개 의대 421명 대비 1.8배 ▲부울경 수학 1등급 919명으로 6개 의대 459명 대비 2.0배 ▲대구·경북은 수학 1등급 756명으로 5개 의대 351명 대비 2.2배 ▲제주권 수학 1등급 94명으로 1개 의대 40명 대비 2.4배 수준이다. 수학 1등급 학생 수 기준, 서울·수도권이 평균 지역 내 의대 모집정원대비 6.3배, 지방 6개 권역은 1.7배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중 80%인 1600명을 비수도권에 할당하는 방안이 유력시되면서 추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대 경쟁률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2000명 중 지방과 수도권에 각각 정원 1600명과 400명씩 8대 2 비율로 배분하고, 지방 거점 국립대 9개교를 중심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비수도권 의대 모집 정원 2023명은 1600명 총 3623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비수도권 고3 중 수학 1등급 학생 수(3346명)보다 277명 많은 셈이다.

수도권대 의대 모집정원은 993명에서 400명이 추가될 경우 총 1393명으로 늘어 올해 기준 수도권 수학 1등급 학생의 4.5배가량으로 줄지만, 비수도권대와는 격차는 여전하다.

문제는 지역인재전형 선발 과정에서 지역별 경쟁률 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국 의대는 지난 2016학년도부터 대학별로 신입생 20~40%가량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많아질 경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비수도권 수험생의 의대 진학이 상대적으로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권 의대 보유 대학 한 관계자는 "앞으로 의대 지원 수험생이 늘고, 수능 등급별 인원 수도 바뀌기 때문에 비수도권 의대 학생 수보다 비수도권 수학 1등급 학생이 많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합격선이나 경쟁률 격차가 커진다는 점은 우려된다"라며 "같은 비수도권이라도 지역에 따라 의대 입학 난이도가 크게 차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도 "향후 의대 모집정원 확대가 어느 지역에 집중돼 있고, 지역인재 확대 정도에 따라 지역간 의대 경합구도는 격차가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정부 "의사 집단행동, 악순환 고리 끊겠다"

〉〉 1면 '의료재앙 분수령'서 계속

방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를 풀어야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며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한 발씩 양보해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 환자를 떠나지 않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는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 '의료재앙' 막을 수 있을까

정부는 이번 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사들의 이번 집단 행동이 과거와 패턴이 똑같다며 이번에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의사들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추진할 당시, 약 1년 동안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해 '의대 정원 10% 감축' 수가 인상 등을 얻어낸 바 있다. 코로나19 첫 해였던 지난 2020년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400명 증원을 추진하다 전공의들의 집단휴진과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교수들의 사직선언에 증원을 포기한 바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YTN 뉴스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오랜 동안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로 조정된 수치를 뒤로 실력 행사로 물리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며 "2000명 수치를 풀라고만 하지 말고 전공의들이 즉시 복귀하도록 해 국민 생명 위태롭도록 하는 상황 먼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해서는 대화와 설득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교수들이 집단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될 가능성이 낮아 국민들이 걱정하는 의료 체계 붕괴가 실제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봤다.

/이세경 기자 seilee@

현대차그룹, 전기차 대중화 풀액셀… '시장 위기론' 정면돌파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도 시장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지난해 전기차 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30% 가량 성장세를 기록했다. 성장 폭은 둔화됐지만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경쟁력 있는 모델 출시와 기술력 강화를 통해 전기차 시장의 리딩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현대차가 새롭게 공개한 ST1 샤시캡 외장 이미지.

기아 EV6(왼쪽부터), EV4콘셉트, EV5, EV3 콘셉트, EV9.

전기차 성장폭 둔화… 위기론 부상
주요 브랜드, 생산계획 재정비 나서
현대차그룹, 신차 등 경쟁력 강화

17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1407만대로 33.5%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 109%, 2022년 57%의 가파른 성장세와 다른 양상이다. 이에 제너럴 모터스(GM), 포드, 폭스보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계획을 축소·연기하거나 하이브리드 생산을 늘리는 등 생산 계획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성장세 둔화로 제기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 위기론'을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현대차는 최근 전기 상용차에 적용할 새로운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인 'ST1'의 디자인을 공개했다. ST1은 샤시(차량의 뼈대)와 캡(승객실)만으로 구성했다. 차량의 뒤쪽의 적재함은 사용 목적이나 방법 등에 따라 최적화해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확장할 수 있다.

차명인 ST1은 '서비스 타입1'의 약자다. 폭넓은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숫자 1은 첫 번째 모델임을 의미한다. 현대차의 1톤 트럭인 '포터'로 대표하는 기존 상용차가 생산 단계부터 정해진 형태로 제작된다면 ST1은 고객별 요구사항을 고려해 주문 제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ST1은 다채로운 확장 가능성을 지닌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며 "물류와 배송 사업에 최적화된 차량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용도에 맞춘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는 만큼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중 ST1의 주요 사양과 제원, 가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ST1의 카고와 카고 냉동 모델의 판매를 국내부터 시작한다.

기아는 올해 볼륨 모델인 EV3 출시로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고 현대차의 ST1과 비슷한 의미로 목적기반차(PBV)를 내놓으며 브랜드 경쟁력 확대에 나선다.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기아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 본사에서 개최된 제 8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기차 대중화와 시장의 티어 원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전기차는 기아의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인 만큼 EV6와 EV9으로 대변되는 기존 상품경쟁력을 기반으로 (EV3를 통해)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겠다"면서 "EV 라인업의 성공적 안착과 PBV의 사업 기반 확보를 통해 지속 성장 공고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출시 예정인 PBV 비즈니스는 기아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핵심사업"이라며 "오토랜드 화성에 건설 중인 이보 플랜트(EVO Plant)를 비롯해 생산, 판매 에코시스템,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선봬 상반기 중 주요사양·가격 공개 예정
기아 연내 EV3 등 신규 라인업 출시

기아는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PV5·PV7·PV1의 콘셉트 실물을 처음 공개된 바 있다. PV5 콘셉트 모델은 책상과 같은 평면을 제공하는 운전석과 조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티어링휠을 통해 운전자에게 사무실과 같은 경험을 제공해 주목을 받았다. 대형 PBV인 PV7은 라인업 가운데 가장 넓은 공간을 제공하며 주행 거리도 길어 장거리 물류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소형 PBV인 PV1는 단거리 물류 운송에 최적화된 모델로 드라이빙 모듈을 사용해 좁은 공간에서 회전 반경을 최소화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공정위 '2023 기업결합 동향·특징' 발표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결합 활발… SK, 26건 '최다신고'

경기침체 우려로 전체건수 감소
대규모 국제기업 결합은 증가

지난해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우려로 기업결합 건수는 감소한 반면, 대형 국제 기업결합 영향으로 금액은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9.7% 감소한 927건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기업결합 금액은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 건에 힘입어 전년 대비 32.2% 증가한 431조원이었다.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739건으로 전년 대비 137건 감소했고, 기업결합 금액도 55조원으로 3조원 줄었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은 전년 대비 건수(11건→19건)와 금액(0.5조원→6.2조원) 모두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231건으로 전년 대비 12.1% 감소했으나, 기업결합 금액은 일부 대형 기업결합 영향으로 전년대비 56.8% 증가한 30조원이었다.

〈2023년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상위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간 기업결합 포함	
집단명	건수
SK	26
중흥건설	13
한화	9
현대자동차·네이버·LS 미래에셋·포스코 ·농협	8
GS·카카오	7

계열사간 기업결합 제외	
집단명	건수
SK	20
중흥건설	13
미래에셋·LS·포스코	8
GS	7
농협	6
DL·다우키움·삼성·삼천리	5

SK가 26건으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중흥건설이 13건, 한화가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업집단 내 단순 구조개편인 계열사 간 기업결합을 제외하면 SK(20건), 중흥건설(13건), 미래에셋·LS·포스코(각 8건) 순이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88건으로 전년 대비 37건 증가했고, 기업결합 금액은 3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8조원 증가했다.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은 40건에서 49건으로 증가했으나, 금액은 18조원에서 8조원으로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628건(67.7%), 제조업이 299건(32.3%)을 차지한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216건), 정보통신방송(83건) 분야 기업결합이 많고,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86건), 기계금속(85건) 분야 기업결합이 많았다.

특히, 전기차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급격히 성장한 2차전지 업종 기업결합이 눈에 띈다. 국내외 기업들은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공급망 재편, EU(유럽연합)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폐배터리 재활용 등 다양한 목적의 기업결합이 이뤄졌다.

또 진입규제 완화로 인해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들이 신규로 신용정보업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 3사 등 5개 사업자가 합작회사로 개인신용평가 회사를 신설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의 기업결합(89조원), 브로드컴과 브에엠웨어의 기업결합(78조원)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결합이 심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39건을 심층심사했고, 이 가운데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 등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23건에는 과태료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맞춰 기업결합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작년 韓 경제성장률 1.4% OECD 평균에도 못 미쳐

지난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1.5%에도 못 미치며 주요국 평균을 밑돌았다.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로, OECD 평균인 1.7%를 하회했다. 이로써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38개국 회원국 평균을 넘어서지 못했다.

한국은 지난 2019년에 성장률 2.2%로 평균(1.8%)에 앞섰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한 2020년에도 -0.7%로 OECD 평균(-4.2%)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이후 2021년(한국 4.3%, OECD 6.0%)과 2022년(한국 2.6%, OECD 2.9%), 2023년 등 3개년 내리 평균수준보다 낮은 경제성장 속도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지난해 일본(1.9%)과 미국(2.5%), 호주(2.0%)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모두 평균을 넘어섰다. 멕시코(3.2%)와 튀르키예(4.5%) 등은 위축된 세계 경제 속에서도 돋보이는 수치를 기록했다.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평균도 OECD 평균인 1.7%에 달했고, G20은 전년(2022년)과 동일한 3.2%를 기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강벨트’ 스윙보터 잡아라… 부동산 정책 등에 표심 달렸다

〈부동층〉

22대 총선 격전지

중·성동을

與 이혜훈, 하태경 꺾고 후보 선출
윤희숙 후보와 ‘경제통’ 시너지 활용

野 박성준, 정호준과 경선 후 본선행
“무책임한 尹정권 반드시 심판할 것”

4·10 총선 ‘한강벨트’ 가운데 핵심축인 서울 중·성동을 선거에서는 ‘경제통’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의 간판 대변인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도전한다.

중·성동을은 한강벨트 중에서도 대표적인 ‘스윙보터’(부동층) 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에, 선거가 몇 주 남지 않은 17일 현재 기준으로도 판세 예측이 어려운 곳이다.

◆대표적 ‘스윙보터’ 중·성동을… 보수→진보→보수로 표심 변화

중·성동을은 20대 총선에 신설된 지역구다. 20대 당시 중구 유권자수가 줄어 단일 선거구가 되지 못해, 성동갑 일부 지역이 편입되면서 중·성동을 지역구가 구성됐다. 이에 중구 전역과 성동구 일부(금호1~4가동, 옥수동)가 해당된다.

이곳은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지상욱)이,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박성준)이 승리했다. 전통적으로는 민주당세가 강하다는 평가였지만, 한강 이북 부촌 지역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따라 표심이 갈리기도 한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중·성동을에 도전하면서 ‘경제통’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초선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현재 당 대변인으로 언론과 소통한 ‘간판 대변인’으로도 평가받는다. /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20대 총선은 새누리당·민주당·국민의당 후보가 3파전을 했다는 변수가 있었다. 당시 민주당 탈당파들이 만든 국민의당에서 민주당 표를 일부 가져갔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패배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표차를 살펴보면 지상욱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정호준 국민의힘 후보를 1.76%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

21대 총선에서는 당시 현역인 지상욱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와 JTBC 아니운서 출신인 박성준 민주당 후보가 맞붙었다. 그런데 출구조사에서는 통합당이 이기는 것으로 나왔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이 4.69%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당시 고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성동구 일부 지역에서는 지상욱 후보가 다소 앞섰지만, 중구에서 상쇄되면서 박성준 후보가 이긴 것이다.

다만,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중구(5.54%포인트)와 성동구(9.97%포인트)에서 이겼고, 곧이어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중구(18.53%포인트)와 성동구(23.55%포인트)에서 큰 차이로 승리했다. 이 때문에 중·성동을은 스윙보터 지역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경제통’ 3선 이혜훈, 중·성동을에서 부활 꿈꿔

국민의힘은 중·성동을 후보 선출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 부산을 떠나 이곳으로 온 하태경 의원(3선), 한강 이북 지역에서 두 번째 도전을 하는 이혜훈 전 의원(3선), 윤석열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이영 전 의원(초선)이 이 지역에서 맞붙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당에서도 지역구 재배치를 시도했다. 그러나 세 후보 모두 이를 거부하면서 3인 경선이 실시됐다. 첫 경선에서는 이영 전 장관이 3위를 하며 탈락했고, 결선에서는 이혜훈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다. 하 의원은 공관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공관위는 이를 기각했다. 하 의원은 공관위 결정 수용을 선언하며, 탈당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혜훈 전 의원은 17대 총선 때 서초갑에서 당선된 뒤 같은 지역에서 3선을 지냈다. 지난 총선에서는 서울 동대문을에 도전했다 고배를 마셨다. 이번에는 중·성동을에 도전하면서 ‘경제통’임을 강조하며,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중·성동을이 서초갑과 같이 재건축과 종합부동산세 문제 등의 현안을 안고 있어, 본인이 적임자라고 자신하고 있다. 또 중·성동갑의 윤희숙 후보와 ‘경제통’ 시너지를 활용해 선거전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民 간판 대변인’ 박성준, 尹 정부 ‘심판론’ 내세워

‘경제통’ 도전자를 맞이하는 ‘디펜딩 챔피언’은 초선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다. 박 의원은 JTBC 아나운서팀장 출신으로, 지난 21대 총선에 고민정 의원 등 다른 언론인 3명과 함께 민주당에 합류한 뒤 중·성동을에 전략공천된 바 있다. 이번에는 정호준 전 의원과 경선을 치르고 본선행 티켓을 획득했다.

박 의원은 현재 민주당 대변인이다. 이전에는 원내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대변인직을 여러 차례 맡으면서 언론과 소통한 ‘간판 대변인’으로도 평가받는다.

특히 이번 경선에서는 원내대변인 포함 대변인단에서 경선 탈락자가 대거 나왔는데, 살아 돌아온 몇 안 되는 대변인 중 하나기도 하다. 박 의원 외에 공천 전쟁을 통과한 이들은 강선우 대변인과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옆 지역구인 중·성동갑의 전현희 민주당 후보도 함께 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개소식 소식을 알리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중구·성동구 주민 여러분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였다”며 “여러분의 열망을 모아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의 폭거에 맞서 당당하게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홍콩H지수 ELS 배상에, 은행은 ‘골머리’ 증권사는 ‘느긋’

판매금융사 투자손실 최대 100% 배상
은행권, 홍콩ELS 판매잔액 15.4조
증권사, 3.4조로 은행보다 현저히 적어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내놓은 가운데 은행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면 판매 금액이 적은 증권가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모습이다.

17일 금융·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은행, 증권사 등 홍콩H지수 ELS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 책임을 묻기로 하면서 판매금융사는 투자자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한다.

ELS 누적 손실률이 2월말 기준 53.5%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과 증권사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은행권 ‘홍콩ELS’ 판매잔액이 15조4000억원(24만3000계좌)인 점, 금감원이 다수의 배상 사례가 20~60% 범위에 있을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은행권 전체 배상액 규모는 1조5000억~2조원 규모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에 반해 증권사의 ‘홍콩ELS’ 판매잔액은 3조4000억원(15만3000계좌)로 현저히 적다. 여기에 모든 투자자에 기본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은행권보다 부담이 줄어든다. 은행은 오프라인 판매가 90.6%에 이르는 데 반해, 증권사는 온라인 판매비중이 87.3%에 달해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금감원은 홍콩ELS 판매 증권사에 공통가중을 3%포인트(p)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홍콩H지수 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증권사 판매액 중 3000억원이 올해 1~2월 사이 만기가 도래했고, 만기도래액 중 손실액은 2000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배상비율을 40%로 가정했을 때 올해 상반기 증권사의 ELS 손실 배상액 합산 규모는 800억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의 홍콩H지수 ELS 만기도래액은 1조9000억원이다. 15조4000억원에 달하는 은행의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배상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본 배상 비율도 다르게 적용된다. 은행은 시스템상 발생한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발견돼 모든 투자자에게 20~40%의 기본 배상비율이 제시됐다.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증권사는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된 불완전 판매 사례에만 20~4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개사와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증권·KB증권·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 등 증권 6개사에 대해 올해 1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은행권을 향한 당국의 압박과 홍콩ELS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8일 주요 은행장과 간담회를 가지며 같은 날 오후 5시 은행연합회 앞에서는 홍콩ELS 피해자모임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15일에는 네이버 카페 ‘홍콩 ELS 관련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결집한 피해자들이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현실화된 부동산 PF위기… “건설사에 유동성 지원 필요”

신속한 부실 처리 등 한계 탓
“직접적인 지원장치 마련해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건설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노력이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 극복에는 유효했지만 신속한 부실 처리 등에는 한계가 있었던 탓이다.

17일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다수 사업장에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성 개선이 지연된 지금 상황에서 문제에 대한 접근 방향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부실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며 “PF의 부실 문제가 1차적으로 건설사 부실에서 촉발되는 만큼 회생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들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진 부동산 PF 대출의 규모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134조원 안팎이다. 금융당국이 직접적인 감독권한을 보유한 6개 금융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PF 직접대출의 총 잔액이다. 새마을금고 등 포함되지 않은 업권에서 실행된 PF 대출잔액과 유동화된 금액을 모두 포함할 경우 실제 부동산 PF의 규모는 작년 말 기준 200조원이 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 PF시장으로의 금융 참여자가 다양해지고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방식도 확대됐다. 부실이 전이될 수 있는 경로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해 위기를 촉발시킬 사건에 대한 예상과 선제적 대응이 쉽지 않다.

이미 상당수 사업에서 PF 대출의 정상적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장에 참여해 있는 시행사와 건설사, 금융사들이 피해에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 정부의 유동성 지원은 건설사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PF 채무에 비해 절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며 “건설 관련 금융기관들을 통해 금융지주 등으로부터 대여 또는 출자 형태로 자금을 조성한 뒤,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사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토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물량도 작년 초 이후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역들에 대해 주택법상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일명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미분양 물량의 효과적인 해소를 위해 ‘미분양 매입 리츠’의 운영이나 임대사업 활성화, 개인 차원의 세제 지원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진짜 하나뿐인 내 편 맞네!"

소상공인과 함께 울고 웃으며
늘 곁에 있는 하나금융그룹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하나뿐인 내 편

소상공인분들께 간판, 실내 보수 지원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해 드립니다!

사 업 명 :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24년 3월 11일(월) ~ 4월 5일(금)
신청방법 : 하나 파워온 공식 홈페이지 https://www.hanapoweron.com

신청하러 가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새로운미래 입당 환영식에서 설훈, 오영환 의원(왼쪽 세번째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설훈·오영환, 새로운미래 입당

현역 5명… 선거보조금 수령 기준 충족
오 의원, 22대 총선 불출마 약속 유지
설 의원 "오 의원에 힘 보태고자 입당"

설훈·오영환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에 입당해 올해 총선에서 약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의원의 입당식을 열고, 합류를 환영했다. 둘의 합류로 새로운미래의 현역 의원은 3명(김종민·박영순·홍영표 의원)에서 5명으로 늘었다.

두 사람이 입당하면서 새로운미래는 선거 보조금 수령 기준인 원내 5석을 충족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위해 현역 의원을 위성정당으로 '꿔주기'를 하는 상황에서 녹색정의당(6석)보다 새로운미래가 많은 현역 의원을 확보하면, 총선에서 최소 기호 5번을 달고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은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는데, 의원 임기 막판 당을 옮겨 제3지대 정당에 힘을 보태기로 결정했다.

오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새로운미래를 선택한 순간, 여러분은 더이상 결코 피해자, 희생자가 아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이 새로운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귀중한 가능성이자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리고 오늘날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거대양당의 갈등 속에서, 대안정당으로써 국민들께 선택권을 넓혀드리기 위해선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우리의 적은 민주당이 아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은 국민의 고통이며 정치에 대한 실망"이라며 "우리의 고향 민주당이, 다시금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바로 세우는 날이 오기를 염원하며, 그날까지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고통받는 국민 여러분께 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의원은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존에 밝혔던 22대 총선 불출마 약속은 변함없고 본업인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출마를 선언한 광주 광산을 일정을 소화하느라 입당식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로써, 새로운미래의 현역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한 오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자신의 현역 지역구였던 충남 논산·계룡·금산군을 떠나 세종갑에 도전하고, 박영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대덕구에서 재선을 노린다. 4선인 홍영표 의원은 인천 부평을에서 5선에 도전하고 설훈 의원은 경기 부천을에서 6선에 도전한다.

설훈 의원은 입당식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 하 민주당은 최근의 '찐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논란에서 보듯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오영환 의원이 새로운미래에 입당해 새로운 변화의 큰 바람을 일으키는 데 힘을 보태고자 저 또한 오늘 새로운미래에 동반 입당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태홍 기자

박용진, 서울 강북을 전략경선 참여
'노무현 비하' 양문석, 버티기 돌입

'막말논란' 정봉주 후보 공천취소
박 "30% 감산, 무리한 유권해석"
조수진 변호사와 2인 경선 진행
양, 노 전 대통령 비판 칼럼 논란
"전 당원 투표, 기꺼이 감수할 것"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노무현 비하'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경기 안산갑 예비후보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수습할 수 있는건 당신 밖에 없다"고 양 예비후보에게 말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막판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 결정과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칼럼 논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고위원회의 끝에 막말 논란으로 당에 의해 정봉주 후보가 공천 취소된 서울 강북을에 전략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최고위는 후보자 공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절차와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이자 정 후보와의 최종 2인 경선에서 패배한 박용진 의원은 17일 서울 강북을 전략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혀 드린다. 들러리를 서라면 들러리를 서고, 구색을 맞추라하시면 장단도 맞춰 드리겠다"면서 "민주당을 위해 기어 가라고 한다면 기꺼이 온 몸으로 기어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강북을 전략 경선을 "전체 권리당원 투표 70%,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 30% 합산의 방식으로 한다고 한다"며 "강북을 선거구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전국의 당원들이 투표권자로 나서야 할 근거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결선까지 짊어지고 간 30% 감산 조치가 전략경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팅에서도 다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헌당규에 없는 무리한 유권해석"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돼 1~2차 경선에서 감산 페널티 30%를 안은 끝에 패했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강북을에 대해 박용진 의원과 유시민 작가와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던 조수진 변호사를 2인 경선에 붙이기로 했다. 경선은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한편, 과거 한 매체 논설위원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칼럼을 통해 강력히 비판한 바 있는 양문석 후보는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에게 '한 소리'를 들었지만, '버티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김부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양 후보를 만나 "수습할 수 있는 건 당신 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재인계 인사들은 양 후보의 노 전 대통령 비판 칼럼이 논란을 일으키자 일제히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노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이광재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는 입장을 내고 반발했고, 친문재인계인 윤건영 의원도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양문석 후보는 과거 칼럼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을 내고 사과했으나, 후보직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는 이날 총선 후보자 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퇴 여부에 대해 "당원들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전 당원 투표도 감수할 생각"이라며 "전 당원들에게 양문석이 이대로 계속 가야 하는지 멈춰야 하는지 전 당원 투표를 만약 당에서 결정해주시면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18일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고 다시 사과의 뜻을 밝힐 예정이다. 양 후보는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그 글들이 유가족과 많은 지지자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죄드리고 있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세션 주재

오늘부터 3일간 서울서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란 세션을 주재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가짜뉴스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2021년 출범한 회의체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단독으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3월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대통령실은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미래의 주역인 세계 청년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과 동시에,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이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글로벌 청년들의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상들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인 18일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이 열릴 예정이다.

17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18일 오찬을 겸한 회담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자유, 인권,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의 민주주의 협력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한반도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 등의 행사가 개최된다.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는 20일 화상으로 개최되며,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의 '포용적 사회와 청년 역량 강화', 윤 대통령의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케냐 윌리엄 루토 대통령의 '글로벌 사우스와의 거버넌스 파트너십'을 주제로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2세션을 주재하며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등 가짜영상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및 민주주의 위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 민주주의를 가꾸고 발전시켜 온 한국의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세계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행안부, 총선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이달 23일 오후 6시까지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3월 9일부터 3월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newsis@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당신의 경험이 최고의 경력

삼성생명 GFC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움직여 본 경험
많은 사람들, 다양한 생각들을 이끌어 본 경험
위기에 맞서 헤쳐나갔던 경험

경력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당신의 경험으로 답하세요

삼성생명 GFC에 지원하세요

삼성생명 GFC(Group Financial Consultant)는
단체보험 컨설팅으로 기업복지를 증진시키고
임직원 보장/은퇴설계를 제안하는 기업보험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본 광고는 임직원 채용이 아닌 컨설턴트 모집용 광고임
준법감시필 23-2320호 (브랜드광고파트, 2023.10.17~2024.10.16)

빨리 받고 빨리 준다… 보험 가입·지급 속도戰

교보생명, 실손청구 간소화 시작
앱·웹 통해 서류없이 간편 청구

신한라이프 AI 활용 S-패스 선봬
무심사·우선심사로 신속처리 가능

흥국생명, 선심사 시스템 연내 구축

보험사들이 신속한 서비스 제공으로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유토이미지

보험사들이 고객을 위한 서비스 속도를 끌어 올리고 있다. 신속한 보험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선보이면서 고객 편의성 제고에 나서는 모양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달 21일 선제적으로 개시했다. 고객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제화 적용에 앞서 선제 적용했다.

교보생명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바일(앱)과 홈페이지(웹)를 통해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휴병원은 전국 4559개 병의원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실손 외 정액보상급부의 지급 심사 연계 서비스도 선보인다. 진단, 입원, 수술 등 정액 보험금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전송하는 경우 동시 청구가 가능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도입으로 접수 업무 축소 등 보험금 업무 처리 과정을 간소화해 더욱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역경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라이프는 보험금 신속 지급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인공지능 기반의 보험금 신속지급 서비스 'S-패스(Smart Claims Pass)'를 지난 16일 선보였다.

고객이 신한SOL라이프앱 또는 홈페이지 사이버창구에 접속해 진료 정보를 입력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S-패스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 심사과정 없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우선 심사로 분류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2개월간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왔다. 시범운영 결과 즉시 지급 건은 평균 30분, 우선심사 건은 당일 이내에 처리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기존보다 대폭 개선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이 보험금을 쉽게 청구하고 회사가 신속·정확하게 지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고객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더 나은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보험 가입 실시간 심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보험 가입설계 단계에서 고객의 가입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선심사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선심사 시스템은 고객의 병력 정보를 입력하면,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입설계 단계에서 인수심사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객은 간편하고 빠르게 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다.

흥국생명은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객의 요구에 맞춘 가입 설계와 보험료 비교로 고객들의 합리적인 보험 가입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으로 고객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SC제일은행, 작년 순익 3506억… 전년비 10% 감소

비용·충당금 증가로 이익 상쇄
이자·비이자익 5%·24% 증가

SC제일은행은 2023년 당기순이익이 지난 2022년 기록한 3901억원 대비 395억원(10.1%) 감소한 3506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비용과 충당금 전입액이 증가하면서 이익 성장을 상쇄했다.

반면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은 성장했다. 이자이익은 총 자산의 감소에도 순이자마진(NIM) 개선에 힘입어 전년보다 5.3% 늘었다. 비이자이익의 경우 시장의 대기성 자금 이동에 따른 자산관리(WM) 부문의 회복, 외환취급 수수료 및 기업대출 관련 수수료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4.1% 증가했다.

비용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증가에 따라 지난해 기록한 8620억원보다 1120억 원(13%) 늘었다. 충당금전입액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리스크 요인을 미래경기전망 조정에 반영하고, 기업대출 충당금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추가 적립금이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10억원 증가한 1570억원을 기록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6%를 기록해 전년 대비 0.03%포인트(p),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6.56%로 전년대비 1.05%p 감소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9%로 전년 대비 0.20%p 상승했다.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기업 및 가계 고정이하여신이 늘어난 까닭이라고 SC제일은행은 설명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전년 대비 100.54%p 하락한 225.43%를 기록했다. 자산 건전성은 여전히 견실한 수준이다.

2023년도 12월 기준 자산 규모는 85조7008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도 12월 기록한 기록한 98조3918억원 보다 12조6910억원(12.9%) 줄었다. 고금리 환경에 따른 대출 수요 감소로 대출채권 자산 감소 및 외화파생상품 자산 감소가 원인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분양 숨고르기… 전국 406가구 공급

분양 캘린더

3월 셋째 주에는 전국 1개 단지, 총 406가구(일반분양 0가구)가 분양한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청약제도 개편 이슈로 청약홈 운영이 일시중단됨에 따라 실질 청약은 전무하다. 다만, 지방에 위치한 민간임대 단지 1~2곳(오픈 포함) 정도가 공급에 나선다. 해당 단지의 임차 계약 여부로 시장 분위기를 체크할 수 없으므로 3월 셋째 주는 잠시 쉬어가는 '숨 고르기' 시기로 볼 수 있다.

3월 넷째 주부터 건설사들의 대기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청약 대기자와 공급자 사이에서의 분위기 변화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청약접수는 충남 당진시 대덕동 '당진대덕수청중흥S클래스포레힐' 민간임대 1곳에서 진행되며, 모델하우스는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롯데캐슬' 민간임대 1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중흥건설은 충남 당진시 대덕동 일원에서 '대덕수청중흥S클래스포레힐'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7개동, 전용면적 24~84㎡(청년 분리형 면적 포함) 총 406가구를 공급하며 신혼부부와 청년 분리형(실), 일반공급 등으로 구분해 임차 계약에 나선다.

단지는 내달부터 입주 가능하며 임대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장기 거주 가능하다. 인근에는 공원 등의 녹지 공간이 풍부하고 학교, 시청, 상업시설 등이 가까워 주거생활이 편리하다.

롯데건설은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원에서 '사송롯데캐슬'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분양한다. 지하 7층~지상 최고 19층, 11개동, 전용면적 65~84㎡ 총 903가구를 공급한다. 오는 6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단지는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가 조성중인 곳으로 지역 상주 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늘고 있다.

/김대환 기자 kdh@

이장우 대전시장(왼쪽 네번째)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다섯번째), 이승열 하나은행장(세번째)이 참석한 내외빈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銀, 대전 대흥동에 힐링 라운지 마련

중장년층 위한 '하나 50+ 컬처뱅크'

하나은행이 대전 대흥동 대전지점에 중장년 세대를 위한 융복합 문화·교육 공간 '하나 50+ 컬처뱅크'를 개점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나 50+ 컬처뱅크에는 하나은행 손님들은 물론 대전시민들이 찾아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라운지 공간'을 만들었다. LP음반·카세트테이프 등에 담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악감상실', 추억의 영화를 다시 감상할 수 있는 '시네마룸' 등이 마련돼 있다.

하나은행은 동 건물 내 위치한 '대전중장년 지원센터'에서 '어른들의 금융학교'라는 컨셉으로 ▲시니어 디지털 교육 ▲중장년 자산관리 상담은 물론 ▲은퇴·노후설계 강연 등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니어 세대가 아름다운 은퇴의 순간을 남기고 축하받을 수 있도록 은퇴식 장소를 무상 지원한다. 하나 50+ 컬처뱅크를 중장년·시니어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카드 News

우리카드

여행·쇼핑 특화 혜택 카드의정석 디어 2종

우리카드가 여행 및 쇼핑 특화 카드를 발표했다.

◆ 5% 적립 및 라운지 동반자 무료

우리카드는 프리미엄 카드의 진입장벽을 낮춘 '카드의정석 디어(Dear)' 2종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카드의정석 디어 쇼퍼'는 쇼핑 특화 카드다. ▲백화점 ▲아울렛 ▲생활 ▲해외 온오프라인 업종에서 5%를 적립한다. 이어 여행 특화 카드인 '카드의정석 디어 트래블러'는 ▲호텔 ▲항공사 ▲숙박 플랫폼 등에서 이용금액의 5%를 받을수 있다.

두 카드 모두 연회비를 15만원으로 책정했다. 합리성에 초점 맞춘 프리미엄 카드란 설명이다. ▲호텔 외식이용권 10만원 ▲네이버페이 포인트 10만원 ▲스마일캐시 10만원 ▲H포인트 10만점 등 기프트(택1)를 매년 지급한다.

하나카드

하나시티즌 홈 개막전 축구팬 위한 할인행사

하나카드가 국내 축구팬들을 위한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

◆ K리그 모든 경기 입장권 최대 5000원 할인

하나카드는 대전하나시티즌의 2024 정규리그 홈 개막전을 맞아 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는 대전하나시티즌 홈 개막전을 시작으로 시즌 종료시점인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대전하나시티즌 MD샵에서 10% 현장 할인한다. 이어 대전월드컵경기장 이마트24에서 1만5000원 이상 구매하면 건당 2000원 청구할인을 제공한다.

오는 7월 31일까지 축덕카드로 K리그 입장권 구매 시, 좌석 등급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는 장당 5000원, 체크카드는 장당 3000원 할인을 적용한다. 단 월 2회, 1일 2매로 제한한다.

KB국민카드

유망 스타트업 발굴 퓨처나인 8기 모집

KB국민카드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한다.

◆ 공동사업 및 협업 예고

KB국민카드는 '퓨처나인(FUTURE9)' 8기 프로그램 참가 업체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집 대상은 ▲플랫폼 콘텐츠 ▲라이프&쇼핑 ▲프로세스 혁신 ▲신소비 트렌드 ▲카드 결제 확대 ▲페이먼트 솔루션 ▲데이터 비즈 ▲글로벌 ▲상생금융 등 총 9개 영역의 스타트업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에게는 공동 프로젝트 진행 및 투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소비 트렌드 및 상생금융 스타트업과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한다는 설명이다.

퓨처나인 8기는 서류 및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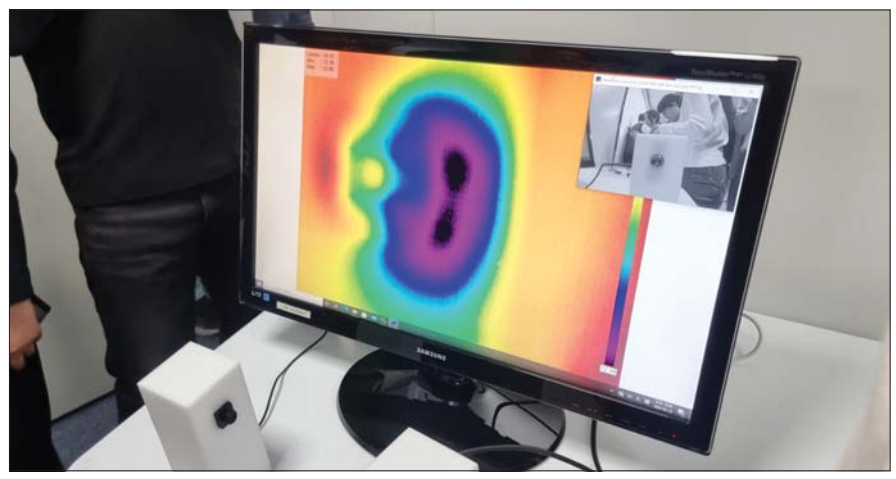
삼성전기 "연내 사계절 전천후 전장용 카메라 모듈 양산"

유리-플라스틱 하이브리드 렌즈
자동히팅·온도유지 기술 확보
눈·안개 등 악천후에도 품질 유지

삼성전기가 악천후에도 품질을 유지하는 전장(차량용 전기·전자 장비)용 카메라 모듈을 올해 양산한다. 카메라에 물이 묻어도, 섭씨 -40~50도에도 화질을 유지하는 제품이다.

삼성전기가 연내 사계절 전천후(Weather Proof) 전장용 카메라 모듈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곽형찬 삼성전기 전장광학팀장 상무가 전장용 카메라 모듈을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기


전장용 카메라 모듈의 모습. 히팅 기술을 탑재해 1분 내 성애 제거가 가능하다. /뉴시스

전장용 카메라 모듈은 IT용 카메라 모듈 대비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카메라모듈이다. IT용 카메라와 다르게 전장용 카메라의 경우 작동여부에 따라 안정성 확보가 달라진다. 외부 환경의 열악함에도 작동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 삼성전기가 이번에 소개한 전장용 카메라 모듈은 눈, 성에, 안개 등 기상악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구동되는 전천후 전장용 카메라 모듈이다.

곽형찬 전장광학팀장 상무는 "최근 일어난 자동차 사고 일부는 자율주행센서가 트럭 흰색과 하늘색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악천후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발생하는 등 기술 부족에 기인했다"며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정확히 식별하고 끊김없는 센싱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기는 센싱 기술 향상을 위해 자동차용 카메라의 유리렌즈 장점과 스마트폰 카메라의 플라스틱 렌즈 둘의 장점도 함께 취했다. 유리렌즈는 빛 투과율과 굴절률이 높고 흠집이 안 나지만 무겁고 충격에 약하며 연마 가공 탓에 생산성은 낮고 단가는 높다. 반면 플라스틱 렌즈는 사출성형 방식의 제조공법으로 대량 생산이 쉽고 가격도 저렴하며 경량화 ·소형화·형상자유도가 가능하다. 반면 온도 변화에 의한 수축 · 팽창이 커 굴절률이 변화면서 성능 저하가 일어난다. 삼성전기는 두 렌즈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보강한 하이브리드 렌즈로 개발했다.

외부 환경의 혹독함에서도 안정적인 시야 확보 등을 위한 기술도 연구했다. 삼성전기는 발수 코팅 기술을 개발해 발수각을 최대화해, 물방울이 렌즈에 접촉하는 면적을 최소화 하고 물방울이 쉽게 날아갈 수 있게 했다.유사 발수 코팅은 일반적으로 햇빛 및 자외선에 노출시 마모되지만 삼성전기의 발수 코팅 렌즈는 기존 시장에 있는 제품보다 수명이 약 6배 이상 길며, 흙먼지, 주차시 긁힘 등에 의한 마모가 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성능은 약 1.5배 이상 수준이다. 더불어 자동 히팅 및 온도 유지 기술도 확보했다.

곽형찬 상무는 "마모를 버티는 것이 관건인데 자사 제품은 시장 제품(6~7개월)과 달리 3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빛의 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조리개(IRIS)도 탑재했다.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로는 세계 최초다. 빛의 양을 오차 없이 조리개를 열고 닫는 정밀한 기구 설계 기술이 필요하다.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은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때라 고성장 중이다. 차량 한 대당 카메라 모듈이 4~5개 사용되나 현재 자율주행 차량에는 20개를 사용 중으로, 이는 추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CONSEGIC BUSINESS INTELLIGENCE에 따르면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 규모는 2023년 31억 불에서 2030년 85억 불로 연평균 약 13.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기는 IT용 카메라 모듈 기술력(Big Sensor, 가변조리개, 폴디드줌 등)을 바탕으로 카메라 모듈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한편 카메라모듈은 스마트폰,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고화질, 소형/슬림화 및 저전력화, 고강성 등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삼성전기는 렌즈설계 및 금형기술, 고성능 엑츄에이터 제조 등 카메라모듈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주요 스마트폰 업체에 카메라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전자, 주주총회 경영진 참석규모 확대

조주완 사장, '실적·비전' 직접 답한다

'열린 주주총회' 콘셉트 개최
신규 주주환원정책 발표 예정

LG전자가 오는 26일 여는 제22기 정기 주주총회 콘셉트를 '열린 주주총회'로 정하고 소통·알림·나눔의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알렸다. 18일 오전 9시부터 사전 참가신청을 받으며, 올해부터는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한다 .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단독 대표이사이자 의장으로 본안 의결에 앞서 참석한 주주들에게 지난해 경영실적과 올해 사업전략에 대해 직접 나서 설명하고 질문에 답한다. LG전자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전환이라는 중·장기 지향점을 두고 사업모델과 방식의 혁신, 고객경험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주주들의 관심도가 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현황에 대해서도 소통한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모습. /뉴시스

올해 주주총회는 참석 경영진의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의장인 조 사장과 사외이사를 포함한 필수 참석 인원 외에도 사업본부장 4명을 비롯해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전략책임자(CSO),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이 참석한다. 경영전략에 대한 주주들의 질문에는 조 사장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최고경영진이 함께 답한다.

LG전자는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3개년 신규 주주환원정책도 발표한다. 이 밖에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에코프로, 'EHS 지원실' 신설

초대 실장에 연창교 상무 임명

에코프로가 가족사들의 안전환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조직을 지주사에 신설했다.

에코프로는 지주사인 에코프로 산하에 최근 'EHS 지원실'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EHS 지원실은 환경(Environment), 보건(Health), 안전(Safety)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조직으로 초대 EHS지원실 실장에는 연창교 에코프로비엠 상무가 임명됐다.

삼성전자 안전환경 분야에서 30여년 업무경력을 쌓은 연 상무는 지난 2022년 에코프로그룹에 입사, 에코프로비엠에서 안전환경 업무를 담당해왔다.

EHS지원실은 가족사 임직원들이 유해 위험을 제로화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 리딩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스템 정비, 각종 사고 예방, 임직원 교육 및 전파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등 안전 환경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장에 대한 사전 센싱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에코프로 서울 본사 전경 /에코프로

안전환경은 모 회사뿐만 아니라 협력회사들의 동참도 중요한 만큼, 장기적으로 협력사 임직원들의 안전환경과 관련해서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리딩할 계획이다.

연창교 에코프로 EHS지원실장은 "우리 임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 환경 보건 활동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전자

무풍에어컨 1000만대 판매

8년간 일평균 약 3300대 이상 판매

2016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무풍에어컨이 8년 만에 국내 누적 판매량 1000만 대를 돌파했다.

삼성전자가 17일 자사 무풍에어컨이 지난 8년간 매일 평균 약 3300대 이상 판매된 수준의 높은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알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세계 최초로 무풍에어컨을 선보였으며 '직바람 없이 쾌적한 무풍'으로 에어컨 시장에서 주목 받았다.

매년 꾸준히 신제품을 내며 기능 개선도 이어가고 있다. /김서현 기자

현대차그룹, IT분야 등 인재 확보 속도

현대차, 내달 1일까지 경력직 채용

현대자동차·기아가 정보기술(IT) 부문 인재 확보에 속도를 높인다.

지난달 기아가 IT 부문 두 자릿수 규모의 경력직 우수 인재 채용을 진행한 데 이어 현대차도 다음달 1일까지 인재 확보에 나섰다.

17일 현대차에 따르면 회사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일까지 경력직 채용에 나선다. 채용 부문은 ▲연구개발 ▲IT ▲사업/기획 ▲경영지원 ▲생산/제조 ▲디자인 등 총 6개 분야다. 특히 현대차는 연구개발 부문 내 총 50개 이상의 직무에서 인재를 모집해 신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서류 접수는 다음달 1일 17시까지며 직무 별 전형단계와 지원자격 등 상세 내용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기아는 지난달 IT 부문을 비롯한 각 분야에 대해 경력직 우수 인재 채용을 진행했다. IT 부문 내 채용 직무는 총 16개로 ▲IT 개발 ▲IT 관리·기술지원 ▲SW 아키텍트(Architect) ▲데이터·인프라·보안 엔지니어 등으로 IT 개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양성운 기자 ysw@

상의, 온라인 유통업계 지원 강화

디지털혁신팀 신설… 경쟁력 기여

대한상공회의소가 온라인 유통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온라인 유통업계 경쟁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혁신팀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유통물류진흥원 내에 디지털혁신팀을 신설했다. 디지털혁신팀은 온라인 유통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한다. 또 정부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등 온라인 유통업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디지털혁신팀은 이와 함께 온라인 유통기업들이 개별 관리하던 상품정보를 표준화하고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상품정보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품정보 경쟁력을 높이고 세분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서현 기자

번호이동시 50만원 준다더니… 단말기·요금제 따라 '천차만별'

이통3사, 전환지원금 기기 달라
최고가 요금제 써야 지원금 많아
실제 받는 지원금 대부분 10만원대

서울 지난달 한 휴대폰 판매매장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 /뉴시스

휴대폰 구입시 통신사를 바꾸면 주는 '전환지원금'이 시행됐지만 개인 조건별 지원 규모가 차이 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전환지원금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이통3사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시스템이 지연된 데다 단말기 별 지원금은 최대 10배까지 차이 나기 때문. 이에 따라 지원금 규모는 당분간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6일 부터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통신사를 이동하는 고객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실제 지원금은 단말기, 요금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급 규모는 이통사가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 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따져 지급하기 때문.

아날 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S24·S24 플러스·S24 울트라 시리즈에 대한 이통 3사의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5000~60만 원이다. 다만 이통3사의 전환지원금은 각 사 마다 최대 금액과 지급 대상 단말기가 상이하다. 또 최대 지원금을 받으려면 최고가 요금제를 써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KT는 아이폰14 시리즈, 갤럭시Z 폴드4·플립4의 경우 지원금을 최대 13만원으로 공시했다. 월 9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구매할 때 5~8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갤럭시 점프3를 구매하면 요금제 상관 없이 5만 원을 지급한다.

SK텔레콤은 전환지원금을 최대 12만원 지급하는데 이는 갤럭시Z플립5와 갤럭시Z폴드4, 갤럭시퀀텀4 등에 해당한다. 갤럭시 A24와 아이폰 SE 3세대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5만 원을 지급한다.

LG유플러스도 아이폰15 프로, 갤럭시Z폴드5·Z플립5에 최대 1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아이폰15 프로의 경우 월 10만5000원 이상 요금제를 24개월간 가입해야 하며 그 이하 요금제로 바꿀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처럼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대부분 10만 원대인 데다 평균 9만원대 이상 요금을 사용해야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제도 시행일이었던 14일에는 전환지원금이 시행되지 않으며 당분간 혼선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가 제도 일을 고시를 했지만, 이통3사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아유로 도입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사 임원을 소집해 전환지원금 지급을 요구했고, 통신3사는 이를 받아들이며 지난 주말부터 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이에 당분간 전환지원금 시행 관련 혼선이 예상된다. 전산시스템이 개발되기 전까지 '수기'로 시행될 계획에다 공시지원금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은 이통사마다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

앞서 조주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지급 기준과 관련 "위약금 수준 등이 다 달라서 구체적으로 금액은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조 과장은 "전환지원금을 이통사가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정할지 총액으로 설정할 지는 이통사가 결정할 것"이라며 "또 가입 요금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주총 앞둔 이통3사, 주주가치 제고 '방점'

일부 이사진 변경, 배당절차 개편
'선배당 후배당일' 제도에 동참해

통신 3사의 정기 주주총회가 오는 18일을 시작으로 연이어 열린다. 통신 3사는 대표이사의 변동이 없는 만큼 일부 이사진 변경안을 다루는 한편, 배당절차를 개편하고 주주 친화 방침을 도모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21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26일 SK텔레콤, 28일 KT 등이 순차적으로 주총을 진행한다.

통신 3사는 특히 이번 주총을 통해 배당절차를 개편하고 '선배당 후배당일' 제도에 동참한다. SK텔레콤은 분기배당, LG유플러스는 중간배당을 진행하고 KT는 분기배당도 도입한다. 그동안 통신 3사는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다음 년도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해 4월에 지급해왔다.

하지만 해당 방식은 주주들이 배당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 회사에 투자를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최근 정부가 배당 규모를 공개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제도를 개편하면서 통신 3사도 개편안을 따르기로 했다.

특히 통신 3사는 대표 이사 재선임을 다루는 한편, SK텔레콤은 사내이사진에도 변화를 준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일부 사외이사진만 변동된다. 먼저 SKT는 유영상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한다. 유 사장은 지난 2000년 SKT에 입사한 이후 약 20년간 SKT에서 재직하다 2021년 대표직에 올랐다.

아울러 회사는 정관도 일부 변경한다. 유영상·김양섭 사내이사, 이성형 기타비상무이사, 노미경 사외이사 선임 등이 주요 안건이다.

올해 SK그룹 정기인사를 통해 SK이노베이션에서 SKT로 이동한 김양섭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을 신규 선임한다.

이 밖에도 HSBC 홍콩에서 아태지역 리스크 관리를 담당했던 노미경 총괄을 신임 사외이사로, SK에서 그룹 재무를 총괄하는 이성형 CFO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는 임원보수지급규정 개정도 다룬다. 경쟁사로의 이직을 금지하거나 창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도 신설한다.

법정 퇴직금을 상회하는 액수의 퇴직금을 받는 임원은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정 퇴직금을 상회하는 액수의 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회사는 규정을 위반한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경영 성과에 대해 주주와 공유함으로써 안정적인 투자처로 매력이 높다"며 "주주환원 안정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구남영 기자

SK E&S 에버차지, EV충전 설비 공급

美 자이언츠 구단과 파트너십 체결

SK E&S가 투자한 EV충전 자회사인 에버차지(EverCharge)가 미국 메이저리그(MLB) 명문야구단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이하 자이언츠)의 홈구장에 대규모 EV충전 설비를 공급한다.

에버차지는 자이언츠와 EV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에버차지는 올해 말까지 자이언츠의 홈구장인 오라클 파크(Oracle Park)에 수백대 규모의 EV 충전 설비를 공급하기로 했다. 설계에서부터 EV충전기 설치 및 유지 보수까지 턴키(Turn-key) 솔루션을 제공한다.

자이언츠는 지난 1883년 창단해 내셔널리그 23회 우승, 월드 시리즈 8회 우승을 달성한 미국 메이저리그 대표 명문구단이다.

오라클 파크에서는 평균 관중수 약 3만명 규모의 자이언츠 홈경기가 연간 80여회 열리고, 유명 뮤지션들의 콘서트와 국제 회의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돼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다. 또 오라클 파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베이는 미국 주요 대도시 중 최초로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이 신차 등록의 50%를 넘는 지역으로 EV 충전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에버차지와 자이언츠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관람객에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EV 충전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라클 파크가 샌프란시스코 내 EV 충전 인프라의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에버차지의 우수한 기술력과 운영 역량이 현지 시장에서 인정받은 성과라는 평가다.

에버차지의 EV 충전기 특허 기술인 '스마트파워(SmartPower)'는 전력 부하를 효과적으로 관리?제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혁신 소프트웨어로 평가받고 있다. 충전 중인 전기차의 충전 패턴 등을 분석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전력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충전기를 운영할 수 있어 별도의 설비 증설 공사 없이 더 많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KT, 30만원대 '갤A15 LTE' 공식 출시

온라인몰 KT닷컴 통해 선보여

KT가 18일부터 30만원대 가격의 스마트폰 '갤럭시 A15 LTE'를 전국 KT 매장, 공식 온라인몰 KT닷컴을 통해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갤럭시 A15 LTE는 6.5형 대화면의 풀HD(FHD)+ 90Hz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5000만 화소 후면 트리플 카메라, 13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를 갖췄다. 5000mAh의 대용량 디스플레이와 25W 충전, 삼성페이 기능 등을 제공한다. 블루 블랙, 라이트 블루, 옐로우 등 3개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A15 LTE 단말기. /KT

제품에는 악성 메시지 차단기능이 탑재된다. 이는 피싱, 금융사기 같은 악성 스팸 문자를 자동으로 차단해 금융 사기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기능이다.

/구남영 기자

애플 AI, MM1 일부 능력 GPT-4V 추월

매개변수 300억개 LMM 공개

그동안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다소 뒤쳐진 것으로 평가 받았던 애플이 매개변수 300억 개의 대형멀티모달(LMM)을 공개했다.

17일 애플 연구진이 LMM 'MM1'을 미국 코넬대학교 논문 저장 사이트 '아카이브(arXiv)'를 통해 공개했다. MM1은 이미지를 읽고 자연어로 설명하는 능력이 탁월해 특정 영역에서 오픈AI 'GPT-4V'와 구글 '제미나이 울트라'를 추월했다.

LMM은 Large Multi-Model로 큰 규모의 데이터셋을 다루는 여러 인공지능 모델을 통합 사용하는 접근방식을 뜻한다.

복잡한 패턴과 관계 파악에 능하고 여러 개별 모델의 예측을 종합하거나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쓴다. AI 시스템의 정확도와 범용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

연구진은 논물을 통해 "고성능 LMM 구축을 위해 다양한 아키텍처의 구성과 학습용 데이터셋 선별에 관해 집중 실험했으며 이를 통해 사전 훈련으로 SOTA(현 최고 수준)를 기록한 각 상황별 여러 모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2024.04.26(금)
13:00~17:00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연 사-

Robert Coppes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Ryuichi Okamot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MDU)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임승원
현 애니젠 고문
전 한국IR협의회 상근부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 행사개요

- **행사명:**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 **일 시:** 2024년 4월26일(금) 13:00~17:00
- **장 소:**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 **등 록:** https://onoffmix.com/event/293926선착순, 사전접수만 입장 가능
- **문 의:** 오가노이드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주 최: metro경제 **후 원**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2:30~13:30	사전등록 (13:00~13:30 VIP Tea 타임)
개회 및 축사	13:30~14:00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섹션1	14:00~15:4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 및 현황 강연1; **Robert Coppes** Prof 강연2; **Ryuichi Okamoto** Prof 강연3;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강연4;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브레이크타임	15:40~15:55	커피 브레이크 및 자유 네트워킹
섹션2	15:55~17:0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 **임승원** 전 한국IR협의회 상근부회장 등 정부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
폐회	17:00	

코스피 떠나는 外人… "美 금리인하 기대감 하락 영향"

15일에만 1조1125억 순매도
코스피, 하루 만에 1.91% 하락
美 지난달 PPI, 예상보다 높아

15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51.92포인트(1.91%) 하락한 2666.84로 장을 마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17.6원)보다 12.9원 오른 1330.5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코스피가 23개월만에 되찾은 2700선이 '일일천하'로 끝난 가운데, 금리인하 기대가 하락하면서 재탈환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바이 코리아(Buy Korea)' 흐름을 유지하던 외국인들도 조 단위 매도세를 보이면서 반전된 태도를 보였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4일까지 순매수세를 유지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15일에만 1조1125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순매도세로 반전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유입과 함께 훈풍을 타던 코스피지수도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4일 약 1년 11개월 만에 2700선을 넘기면서 2718.76을 기록했던 코스피지수는 하루만에 1.91%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사실상 외국인들이 이끌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등 국내 증시로의 유입을 유인했지만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은 이탈하고, 외국인만 잔류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기관과 개인은 8942억원, 6조6857억원씩을 팔아치웠다. 반면, 외국인은 홀로 8조2412억원을 사들이면서 하락 압력을 방어했다.

이후 정부가 시장의 기대감에 못 미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을 때도 외국인들은 저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들을 담았다. 하지만 15일에는 돌연 1조원이나 던지면서 코스피를 끌어내렸다. 이날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만 1조354억원을 팔아치웠으며, 기관 역시 609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1조193억원들 사들였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미국의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동기보다 0.6%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0.3%보다 다소 높은 수치로 PPI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자 국내 증시에도 그 여파가 작용한 것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발표된 미국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이 일부 후퇴했다"며 "채권과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코스피 등 하방압력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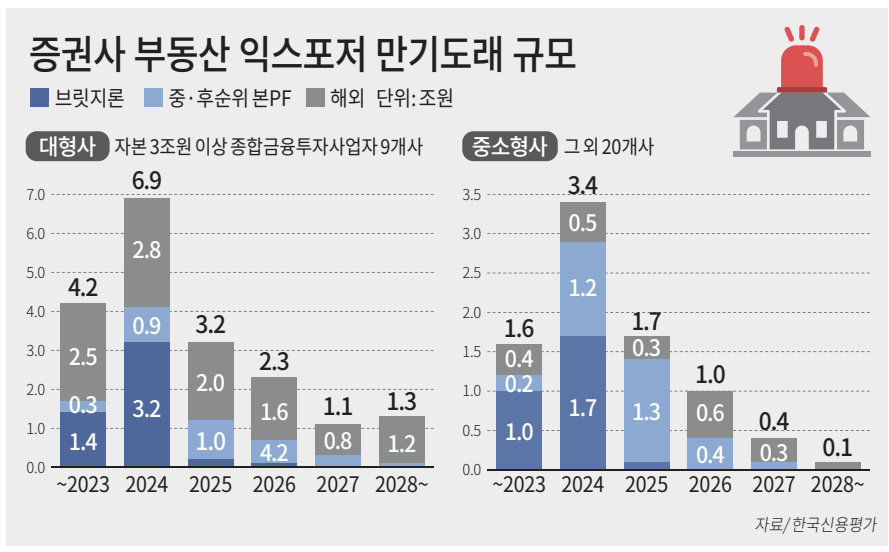
코스피가 23개월 만에 2700선에 다시 올라섰지만 하루 만에 내려 앉은만큼 쉽게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여진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외국인들의 투심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올해 들어 기관과 개인의 국내 증시 유입이 소극적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관건은 19~20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월 물가지표가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을 기록한 것은 아쉽지만 2월 물가지표가 6월 금리 인하 확률을 크게 낮추는 요인이 아닌 상황"이라면서도 "3월 FOMC 회의 결과가 예상보다 매파적일 가능성은 커졌다"고 예상했다. 특히 월 FOMC회의에서 발표되는 점도표가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올해 3회 인하를 전망했던 점도표 내용이 2회 정도로 수정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증권사, 부동산 익스포저 만기도래 규모 '10兆' 달해

대형사, 브릿지론·본 PF 관련 비중 커
올해 리파이낸싱 리스크 고점에 고비
중소형사, 국내 브릿지론 비중 높아



올해 증권사들의 국내외 부동산금융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만기 도래 규모가 1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 뒀지만, 올해도 부동산 리스크가 증권업계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7일 한국신용평가사에 따르면 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 증권사) 9개사의 올해 주요 부동산 익스포저 만기 도래액은 총 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형사를 제외한 중소형 20개사의 만기 규모는 총 3조4000억원이다. 주요 증권사 29개사가 올해 대응해야 되는 부동산 익스포저 만기 규모는 약 10조3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대형사는 전체 6조9000억원 중 브릿지론(3조2000억원)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부동산 본PF(2조8000억원) 관련 익스포저의 비중이 크다.

한신평은 대형사들의 해외부동산 관련 익스포저 만기 도래액이 향후 5년 내 올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리파이낸싱 리스크가 가장 고점인 2024년이 고비일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중소형사는 해외부동산(5000억원)보다 국내 사업장의 브릿지론(1조7000억원)과 중·후순위 본 PF 대출(1조2000억원) 익스포저 비중이 훨씬 높았다.

한신평은 개별 PF 사업성(지역, 변제순위, LTV수준 등)에 따라 변별력이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형 증권사는 지난해 말 기준 상대적 고위험인 국내 부동산금융 대비 충당금을 27.1% 쌓았으나, 같은 기간 중소형 증권사는 19.7%만 설정했다.

한신평은 "지난해 4분기 상당 규모의 충당금 설정했고, 연간 이익규모, 자본적정성등 감안 시 업계 전반의 대응력은 존재한다"면서도 "다만 충당금 적립, 유동성 대응 부담으로 재무안정성이 저하되는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신용도 하방 압력은 지속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정제마진 강세·국제유가 반등
올해 실적개선 본격화 기대

metro 관심종목
S-Oil

정유업황 강세가 이어지면서 에스오일(S-Oil)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에스오일의 올해 실적이 크게 회복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에스오일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80% 오른 7만93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올 초에 비하면 13.93%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 급등했던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에스오일의 주가도 6만원 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했으나 올들어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면서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제마진 강세가 에스오일의 주가 상승에 힘을 싣고 있다.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올해 1분기 배럴당 최고 15.3달러를 기록, 지난해 4분기 평균인 4.1달러에 비해 약 3.7배 상승했다. 이달 들어 계절적 비수기에 진입하면서 복합정제마진이 5.9달러까지 떨어졌으나 여전히 손익분기점을 넘는 수준이다.

올들어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는 기대에 국제 유가가 반등한 점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선물 가격은 지난 14일(현지시간)기준 배럴당 81.26달러에 마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에스오일의 1분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NH투자증권은 에스오일의 올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 9조3000억원, 영업이익 548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스오일의 향후 주가 전망도 긍정적이다. 윤용식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순수 정유주의 매력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금융권, AI 경쟁력 높인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 필요"

금감원 '금융권 AI 활성화 세미나'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데이터와 다양한 산업군의 데이터를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15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권의 건전한 AI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회사 AI 담당 임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의 AI 정책 추진방향을 금융권에 소개하고 학계와 산업계, 금융권 전문가들과 함께 AI 활용 활성화·책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AI 우위 선점을 위한 해외 주요국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금융데이터와 다양한 산업군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가 융합·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원장보는 산·학·연 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해 AI 혁신의 저해요인을 발굴·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감독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I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은규 인공지능확산팀장은 '정부의 AI 정책방향과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세션에서 발표를 맡았다. 이 팀장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AI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금융권과 질의·응답을 통해 AI 정책관련 현장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 LG AI연구원 상무는 생성형 AI가 다양한 입력형태(멀티모달 AI)를 이해하고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가공(액셔너블AI)하면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까지 수행이 가능해져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상무는 "클라우드 기반의 초거대 언어모델 대비 데이터 보안에 강점이 있는 온-프레미스(On-premise) 기반의 생성형 AI 시스템 활용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전한 AI 활용 방안 및 금융권 AI 활용사례 공유' 세션에서는 권태경 연세대 교수가 국내·외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기술적 특성과 데이터 흐름 중심의 AI 동작 방식을 소개했다. 권 교수는 언어모델의 악용, 플러그인 취약점 등 대규모 언어모델의 7대 주요 보안 위협 및 발생원인을 진단하는 한편 접근계정 보안강화, 올바른 언어모델 확장 프로그램 사용 등을 통한 생성형 AI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AI를 금융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소개됐다. 참석한 조영서 KB지주 부사장은 생성형 AI 기술검증 사례에 기반한 AI 거버넌스 구축 경험을 공유했다. 조 부사장은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KB 윤리기준·AI 위험도 분류기준 등 위험관리 정책, 통제 프로세스 수립방향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AI가 금융혁신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학계, 업계, 글로벌 금융감독기구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플라스틱·PE 대체 '친환경 종이' 개발… 100년 기업 도약

〈폴리에틸렌〉

내년 60주년 한솔제지

프로테고·테라바스 등 잇따라 선봬
'고래를 구하는 물티슈' 출시하기도

"재생용 종이자원 사용량 높여
자원순환 측면서 업계에 모범"

한철규 한솔제지 대표.

한솔제지의 친환경 종이용기 '테라바스'.

내년에 60주년을 맞는 한솔제지가 100년을 준비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친환경'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철규 한솔제지 대표는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재활용 종이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으로 자원순환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산업용지는 재생용 종이 자원 사용률을 90%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인쇄용지 및 감열지까지 재생용 종이자원 사용량을 높여 자원순환 측면에서 업계의 모범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7일 한솔제지에 따르면 친환경을 지향하며 선보인 대표적인 제품이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종이연포장재 '프로테고(Protego)'와 폴리에틸렌(PE) 코팅 대신 수용성 코팅액을 적용한 친환경 PE-Free 종이용기 '테라바스(Terravas)'다. 앞서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래를 구하는 물티슈'를 출시하기도 했다.

특히 종이를 친환경 패키징 소재로 활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종이원료인 펄프에서 친환경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펄프를 가공, 미세화해 만든 친환경 소재인 셀룰로오스 미세섬유 '듀라클'이 대표적이다.

프로테고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젤리, 과자, 샌드위치, 파우치 음료 등 식품 포장재를 비롯해 마스크팩, 여드름 패치 같은 의약품, 화장용품 포장재 등 약 40여가지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프로테고는 내용물의 보존성을 높이고 종이류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솔제지만의 코팅물질 배합 기술로 종이 표면에 산소·수분·냄새를 차단하는 코팅막을 형성, 기존 종이 소재에선 구현하기 어려웠던 고차단성을 갖췄다.

프로테고는 전과정평가(LCA)를 통해 동일한 기능을 가진 플라스틱 필름 대비 30% 이상 탄소를 덜 배출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친환경 종이용기 테라바스는 '자연을 담는 용기'라는 뜻으로, 한솔제지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수용성 코팅액을 적용했다. 이에따라 종이류 분리배출이 가능해 재활용이 쉽고 내수성과 내열성이 우수해 용기, 컵, 빨대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어 대형 프랜차이즈나 식품업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한솔제지는 또 플라스틱이 갖는 장점과 종이소재의 재활용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은 제품인 '종이 실링트레이'도 선보였다. 기존 플라스틱 트레이의 구조체는 종이로 대체하고, 식품이 닿는 부분은 식품용 전용 필름을 사용해 차단성과 접합성을 높였다. 필름으로 밀폐하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육류 등 신선제품에 제격이다.

이 제품은 국제삼림관리협의회(FSC)로부터 인증받은 친환경 종이로 제작, 플라스틱 사용량을 85%까지 줄일 수 있다.

'고래를 구하는 물티슈'는 나무에서 유래한 천연펄프와 식물성 레이온을 혼합해 만들었다. 대부분 플라스틱 원단으로 만드는 기존 물티슈와 달리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고, 물이나 미생물에 의한 자연분해가 가능해 우수한 생분해성과 물풀림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친환경 소재인 듀라클은 광학적으로는 투명하며, 가벼우면서도 높은 강도를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목재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생분해성을 지닌 탄소중립 소재로 지속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 지난 2018년엔 국내 최초로 셀룰로오스 미세섬유 생산 설비를 도입해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고 화장품, 페인트, 코팅, 우레탄, 고무, 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적용 기술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듀라클은 1979년 국내 최초의 제지연구소로 설립된 한솔제지 중앙연구소가 적용처를 넓히고 응용기술 등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이외에 한솔제지가 약 44.8%(2023년 11월 기준)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산업용지 부문에선 재활용 종이자원을 90% 이상 함유한 'Hi-Q IV', 100% 천연 펄트를 사용한 무형광 제품인 'Hi-Q AB 플러스' 그리고 인쇄용지에 쓰이는 교과서 전용 친환경 재생용지 '그린교과서지', 종이영수증 등 감열지에 쓰이는 'Green RC', 'PF RC' 등도 모두 친환경 수요에 대응하기위해 개발한 제품들이다.

한편 한솔제지는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 2조1941억원, 영업이익 472억원으로 전년도 매출(2조4580억원), 영업이익(1302억원)에 비해 다소 주춤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첨단·자동화 물류역량 알려

CJ대한통운, 美 'MODEX 2024' 참가
수송·창고보관 등 통합 서비스 소개

CJ대한통운이 미국 물류산업전시회인 'MODEX 2024'에 참가해 첨단화·자동화된 물류 운영역량을 전 세계에 알렸다.

CJ대한통운은 미국법인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CJLA)가 지난 11~1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열린 물류전시회 'MODEX 2024' 참가해 다양한 서비스를 성황리에 선보였다고 17일 밝혔다.

MODEX는 4만5000명 이상의 유통 및 물류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방문하는 세계적 물류산업전시회로 최신 물류 로봇기술, IT시스템, 트렌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CJ대한통운은 개별 홍보관을 활용해 CJLA의 물류사업 현황과 함께 기업들이 고민하는 수송, 창고보관, 국제운송 등 복잡한 물류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를 소개했다. 냉장·냉동 제품에 특화한 콜드체인(Cold Chain)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통해 생산, 물류, 유통 전 과정에서 철저한 온도관리를 필요로 하는 식품 제조기업, 유통업체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1~14일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물류전시회 'MODEX 2024'에 참가했다. 교육세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은 교육세션에 참가해 창고관리시스템(WMS)에 대한 발표도 진행했다.

CJ대한통운은 앞서 미국에 진출해 제조, 유통, 이커머스 등 산업계 전반에 걸친 풍부한 물류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18년 인수한 미국 현지물류기업 'DSC Logistics'와 기존 미국법인 'CJ Logistics USA'를 합병해 통합법인 'CJ Logistics America'를 2020년 출범시켰다.

통합법인을 주축으로 CJ대한통운은 미국 주요 지역에서 식품, 패션, 헬스케어, 전자 등 다양한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보관물류, 수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이송로봇 등 다양한 첨단 물류기술들을 도입해 고객들에게 보다 최적화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한샘, 인테리어 공사 최대 600만원 할인

'봄맞이 인테리어 공사' 이벤트

한샘이 본격적인 봄을 앞두고 한샘 리하우스 매장에서 부엌·욕실·수납 인테리어 공사 고객을 대상으로 '봄맞이 인테리어 공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17일 한샘에 따르면 오는 4월 30일까지 리하우스 매장에서 부엌과 수납을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 패키지를 계약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600만원을 할인 판매한다.

부엌과 욕실, 붙박이를 각각 개별 상품으로 구매해도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샘 부엌 신제품 ▲유로300 오리진(Origin) 시리즈 ▲유로300 매트 매그놀리아(Matt Magnolia) 구매 시 50만원 상당의 한샘 인덕션 3구 또는 삼성 스마트오븐을, 한샘 인기 욕실 ▲밀란7 프레임 우드 ▲밀란5 뉴트럴 브라운 ▲밀란3 오슬로를 계약하면 30만원 상당의 '레인샤워 수전'과 '한샘 비데' 중 원하는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계약 후 공사를 4월까지 완료할 경우 혜택이 적용된다. /김승호 기자

쌍용C&E, 체계적 안전문화 구축 나서

'무재해 실현 안전문화 로드맵' 수립

쌍용C&E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사 공동의 무재해 실현 안전문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안전문화 구축에 나선다.

안전관리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재해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위해서다.

17일 쌍용C&E에 따르면 이번에 확립한 '노사 공동의 무재해 실현 안전문화 로드맵'은 생산공장의 안전관리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3개년에 걸쳐 연도별 안전관리 활동의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작업자간 상호 보호를 통한 무재해 실현을 최종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쌍용C&E는 올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체계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전 사업장의 '재해 발생건수 0'를 목표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힘쓴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노사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율화 단계를 구축하고, 2026년에는 현장의 작업자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를 보호하는 상호보완의 안전문화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현장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명예산업안전관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김승호 기자

오픈AI, 튜링 등 韓 스타트업 10곳 육성

최종선정 기업, 중기부서 2억 지원

OpenAI(오픈AI)가 한국의 스타트업 10개사를 육성한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오픈AI 본사에서 열린 'K-Startup & OpenAI Matching Day in US' 행사에서 에이슬립, 클라이원트, 디케이메디인포, 마리나체인, 넥스트페이먼츠, 나인와트, 런코리안인코리안, 튜링, 와들, 위레이저 10개사가 올해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으로 뽑혔다.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중기부로부터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오픈AI로부터는 오픈AI 서비스 이용을 위한 크레딧과 전문가 멘토링,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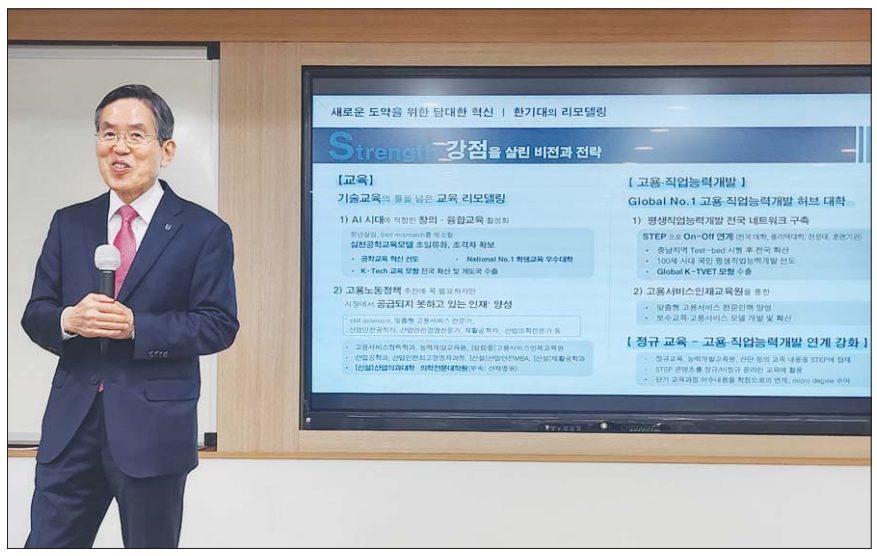
중기부는 지난해 6월 오픈AI 대표 샘 알트만(Sam Altman)을 초청해 연 공개 간담회에서 오픈AI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AI 분야 한국 유망 스타트업을 공동 육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내에서 'K-Startup & Open AI Matching Day'행사를 열고, 오픈AI와의 협업 프로그램에 지원한 스타트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예선 발표 평가를 진행해 스타트업 14개사를 1차로 선발했다.

이들 14곳이 이번에 미국 오픈AI 본사 임원들 앞에서 다시 선 것이다. /김승호 기자

전국 10개 산재병원 부지·시설 등 활용 '한기대 의대' 설립

유 총장, '한기대 미래 전략' 발표
산재병원 의사가 임상교수 맡아
산재병원서 인턴·레지던트 수련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이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산업의과대학 신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전국 10개 산재병원 부지와 시설, 의사 인력을 활용한 의과대학 설립이 추진된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산업의학전문의 등 공공 의료인력 확충이 우선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기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 총장은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한기대 미래 전략'을 발표하며 "1989년 한기대 설립 기본계획에도 산업의학과 신설이 명시된 바 있다"며 "산업의과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코로나라든지 메르스 사태 이런 걸 경험하면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 중 하나가 됐다"며 "그래서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산업의과대 설립과 관련해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과 10개 산재병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의과대 설립은)산재병원 활성화와 산재보험 재정 건전화도 맞물린 이슈"라며 "현재 산재병원은 장기요양 환자로 적자 발생이 많고 그것이 산재병원 재정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재병원이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중추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공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총장과 한기대에 따르면, 한기대 산업의과대는 한기대 1,2캠퍼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전국 10개 산재병원 부지와 시설이 활용된다.

산재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쓰고 일부 산재병원 의사를 임상교수로 활용해 의대 설립 비용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한기대가 보유한 첨단 공학기술과, 민간병원이 갖기 어려운 산재병원 재활시설 인프라를 결합하면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기대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산업의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산업안전공학자, 재활공학자, 산업의학전문가, 맞춤형 고용서비스 전문가 등 시장에서 필요하지만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 인재도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산업재해자 수는 약 13만명으로 최근 20년간 지속 증가 추세다. 특히, 국내 산업재해 치명률(2021년 기준)은 근로자 10만명당 4.27명으로 영국(0.78명), 독일(0.73명), 일본(1.54명) 등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연간 배출되는 산업의학전문의는 매년 30명 내외에 불과하다.

한기대는 산업의대 설립과 관련한 기초 연구를 마쳤고,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 총장은 "교육부 협의 등 종합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발표까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하는 데는 한 1년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개인·기업 모집

환경부, 선발시 최대 8300만원 지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7일 녹색산업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과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녹색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중 하나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녹색산업 생태계의 새싹을 키우기 위해 올해 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참가자격은 예비청년창업자와 초기 청년창업기업이다. '예비청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2024년 5월9일~2024년 10월30일) 내 녹색산업 분야로 창업해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만 39세 이하인 개인이 대상이다. '초기청년창업기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창업(2021년 2월28일~2024년 2월28일)한 기업으로 녹색산업 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2024년 5월9일~2024년 10월30일) 내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청년과 기업에는 최대 8300만 원의 창업자금과 전문 육성자로 구성된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모집기간은 3월 18~29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에코스타트업 누리집(https://www.eco-startup.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EU 등 6개국에 기술규제 10건 이의제기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참석

정부가 유럽연합(EU)측의 불소화온실가스 수입 규제 등 기술규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12~15일)'에 참석해 우리 주요 수출국 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 우리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불소화온실가스(Fluorinated Greenhouse Gases)는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제로 사용되는데, EU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작아 광범위하게 사용중인 HFC-1234yf(냉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한 대화와 협력 등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 수기자

배·사과 생산단지에 생육관리 철저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대구 군위군의 배 생산단지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올해 생육관리 상황 및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현황 등을 점검했다. 그는 수급불안 방지를 위해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봄철 냉해 등의 영향으로 과일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안정적 생산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배 과수원을 찾아 냉해예방약제 살포 현황을 점검하고 "작년과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개화기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냉해예방약제 적기 살포, 재해예방시설 조기 설치 완료 등 예방을 위해 농가와 지자체, 농촌진흥청 모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를 방문하여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현황과 차세대 과원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韓 기업, 인니 해양플랜트 수주 "재활용 등 진출 다방면 지원"

LNG 연료 운영 등 사업 수주
지난달 1300억 규모 낙찰 후 성과

정부청사 내 해수부. /메트로

국내 해양플랜트 설계 개조기업인 ㈜가스엔텍과 인도네시아 현지기업 등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말루쿠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공급망 구축 및 운영 서비스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3월 인니 전력공사 자회사가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총 4조4000억 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권'을 발주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이번에 우리 기업이 수주한 규모는 4300억 원으로, 지난 2월23일 '누사 텡가라' 지역의 낙찰(1300억 원)에 이은 성과로 총 5600억 원 규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스엔텍이 술라웨시 말루쿠 지역의 해양LNG 연료공급망 구축·개조·운영 등 시공 전 과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자카르타에 위치한 '한-인니 해양플랜트협력센터'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양플랜트 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개발 단계부터 최종 수주단계까지 협의에 참여했다. 또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다. 해양플랜트 서비스란 해양플랜트 전(全) 단계 중 플랜트 건조 이후의 단계이다. 운송과 설치, 운영을 비롯해 및 보수·개조·해체 등이 이뤄지는 분야를 말한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 '북파푸아' 지역의 입찰에도 국내 또 다른 해양플랜트 서비스 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며, 조만간 수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수부는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개조·재활용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집중호우 등 예방에 노후 저수지 안전관리

664지구의 수리시설개보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노후 저수지의 보수·보강에 나선다고 밝혔다. 흙수로의 구조물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총 664지구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추진(총사업비 7462억 원)할 계획이다. 농업용 저수지 총 1만7066개소 중 50년 넘은 시설은 1만4877개소(87.2%)로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최근에 강우 강도가 세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 노후 저수지의 물 그릇을 키우기 위한 저수지 준설을 대폭 확대(30억 원→430억 원)하여 홍수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설규모가 큰(저수용량 500만㎥ 이상) 저수지는 내용적 조사를 통해 내한능력 및 홍수 대응능력을 분석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시설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의 분기별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관리해 왔다. 안전등급 D등급 이하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우선적으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데뷔 30주년 기념
나윤선 Elles 콘서트
DATE: 2024.04.17(WED) 19:30
VENUE: 롯데콘서트홀
TICKET: LOTTE CONCERT HALL yes24
R석 120,000원, S석 100,000원, A석 80,000원, B석 60,000원
문의 070-8671-8103
LOTTE CONCERT HALL
NPLUG CONNECTED BY MUSIC AND ARTS
Alive! MAX VITAL
SPRING Communications
Alive! 얼라이브! 맥스 바이탈
나윤선 "Elles" 콘서트 관람 고객 모든 분들께
고급 액상 멀티비타민 얼라이브 맥스바이탈을 드립니다
[7개입 선물세트]
ALIVE! MAX VITAL
얼라이브! 맥스 바이탈
멀티비타민 & 미네랄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가속화… “전남 생활권 확장”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등
지역 균형 발전 도모 기대
2단계 건설 시기 앞당겨

전남 서남권 발전 숙원 사업인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표명함에 따라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생활권을 확장하고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면서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에 이어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신우철 완도군수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전국 단일 생활권 형성 등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남군 명현관 군수도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의지를 밝힌데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전했다.

명현관 군수는“지역의 현안 사업인 광주~해남~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군민들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며“지역성장의 가장 기초가 되는 SOC 확충으로 전남 서남권의 공동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가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약속한 만큼 2단계 사업 추진 또한 속도를 높이게 되는 것은 물론 2034년 완공 예정인 최종구간의 건설 시기 또한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완도군의 숙원사업인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은 지난 2014년 타당성 재조사 후 광주 벽진동~강진 성전 구간을 1단계, 강진 성전~해남 남창 구간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1단계인 광주~강진 구간은 총 연장 51.11km, 총 사업비 1조 7811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 8월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단계 구간은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까지로 총 연장 38.9km, 총 사업비는 1조 5965억원이며, 2023년 8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민생토론회에서는 광주~영암간(솔라시도 기업도시) 47㎞ 초고속도로 건설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는 등 전남 서남권의 교통망 확충에 대한 약속이 눈에 띄는 자리가 되었다. 광주~영암간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서호교차로(IC)를 통해 해남의 솔라시도 기업도시진입도로와도 곧바로 연결돼 전남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완도군과 해남군은 그동안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은 2001년부터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1단계 구간은 2017년도에 착공, 2단계 구간은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중점 추진 노선으로 확정되고,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됐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구미시는 3월 15일 이수스페셜티케미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구자근 국회의원, 류승호 이수스페셜티케미컬 대표,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장세구 시의회 부의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구미시, 전고체 배터리 핵심社 유치
내년부터 3000억 이상 투자 계획

정밀화학社 이수스페셜티케미컬과
구미산단 내 공장신설 계약 체결

구미시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이수그룹 계열사인 이수화학에서 인적 분할된 정밀화학 기업으로,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황화 리튬(Li2S)은 전고체 배터리의 고체전해질을 구성하는 핵심 원료로 제조공법이 매우 까다로워 양산하기 어렵고 그 기술력을 갖춘 기업은 손을 꼽는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전고체 배터리 핵심 원료인 황화 리튬 생산을 위해 구미산단 내에 신규 공장을 건립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투자 부지를 신속히 확보하고, 2025년부터 신규고용 100명과 3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할 계획이다.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의 신규 입주로, 구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첨단산업 메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경북)=류희철 기자 rhc1369@

나로우주센터서 ‘고흥우주항공축제’ 열려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세계 13번째이자 지구 밖 우주로 가는 대한민국 유일한 플랫폼 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위대한 인류의 비상, 지구인에서 우주인으로!’라는 주제로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우주탐험의 서막, 지구 밖 또 다른 행성, 새로운 우주의 시대를 테마로 ▲국내 유일한 나로우주센터 견학 ▲우리나라 최초 위성 발사체인 나로호(KSR-Ⅲ)와 누리호 실물 기획 전시(1단~3단 로켓, 위성, 페어링, 엔진) ▲우주인 친구와 만나 달나라를 여행하는 우주여행 미디어아트 등 우주항공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관광객들이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축제도 병행 추진한다.

/고흥(전남)=양수녕 기자

목포시, 시내버스 노선개편 안정화 ‘총력’

민원사항 지속 모니터링

목포시가 시내버스 노선개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번 노선개편은 지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개편으로 중복 노선 개선, 굴곡 노선 직선화, 영산로 집중 노선의 백년대로 분산화 등 노선의 효율화를 통해 시내버스 노선을 기존 14개 노선에서 8개로 간소화했고, 이를 통해 적자 노선을 줄이는 것이 금번 개편의 핵심이다.

목포시는 이번 노선개편과 관련해 지난 3주 동안 시민소통신문고와 전담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이 총 2066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1278건은 시범운행 기간에 접수되었고, 3주째인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접수된 민원은 788건으로 이는 시범운행 기간보다 감소했다.

개학일인 지난 4일 이후 순환66번(66-1번)에 대해서는 신학기임을 감안해 등·하교 시간대에 한시적으로 2대를 증차하고 배차간격을 기존 13~15분에서 10분 내외로 조정했다.

목포와 무안을 경유하는 200번에 대해서는 무안군 손실분담금 일부 분담에 따라 당초 12대에서 7대로 감축 운행되었지만, 배차간격을 25분에서 20분으로 5분 당겨 탄력 조정했다.

시는 계속해서 시 홈페이지, 전화, 현장 모니터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 대책을 수립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면서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가동을 위한 선행 과제인 노선 개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주시, 내년 국비 9465억 확보 목표

내년 국비지원 건의사업 보고회

경주시가 내년도 국비 목표액을 9465억원으로 잡고 예산 확보에 본격 나섰다.

시는 지난 15일 알천홀에서 주낙영 시장, 국소본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국비지원 건의사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구체적인 국비 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글로벌 경기 위축,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 등 어려운 상황 속에도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지난해 목표액 9227억원 대비 238억원 증액한 9465억원으로 잡았다. ▲신규사업 51건 ▲계속사업 109건 등 총 160개 등 국비 9465억원(총사업비 8조 3722억원)의 사업비를 건의할 예정이다.

새로 발굴된 주요 신규사업은 ▲양성자 가속기 기반 오픈 리노베이션 캠퍼스 조성(70억원) ▲신라문화 관광단지 조성(10억원) ▲국립 대한민국 관광역사관 건립(25억원) ▲무장애 예술학교 운영(5억원) ▲미래자동차용 스마트 유틸리티 기반구축(20억원) 등이 있다.

계속사업으로는 ▲신라왕궁(월성) 복원·정비(6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지역 이모저모

영천시

‘저출생과의 전쟁’ 적극 동참

합계 출산율 도내 시부 1위인 영천시가 ‘저출생과의 전쟁’에 나선다.

그간 영천시는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 이후, 돌봄·주거·출생 관련 부서들을 대상으로 1차 대응회의를 열었으며, TF 추진단(단장 김진현 부시장)을 꾸리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주요 시책으로, 제이병원(분만산부인과)과 가족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축, 지역밀착형 공공주택 조성 등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영천(경북)=이대호 기자

경남도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경상남도는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지원사업’ 신청을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사업신청은 도내 주소를 두고 도 전략품목을 최소 800㎡ 이상 재배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인증(유기·무농약)을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가능하다.

지원면적은 농가당 최대 660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단가는 유기 인증품목은 제곱미터(㎡) 당 250~350원, 무농약 인증품목은 제곱미터(㎡) 당 150~250원으로, 농가당 최대 231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진도군

진도개 보존관리센터 건립 추진

진도군이 진도개테마파크 일원에 ‘천연기념물 진도개 보존 관리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천연기념물 진도개 보존 관리센터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국도비 등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체면적 4488㎡규모의 부지에 견사동, 관리동, 심사장, 운동장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진도개의 안전한 양육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진도개 보호·관리체계를 개선해 진도개의 이미지를 향상하고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대구시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활성화

대구광역시는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적극 추진에 나선다

특화단지 내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35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모터 성능평가 인증센터 조성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모터 기업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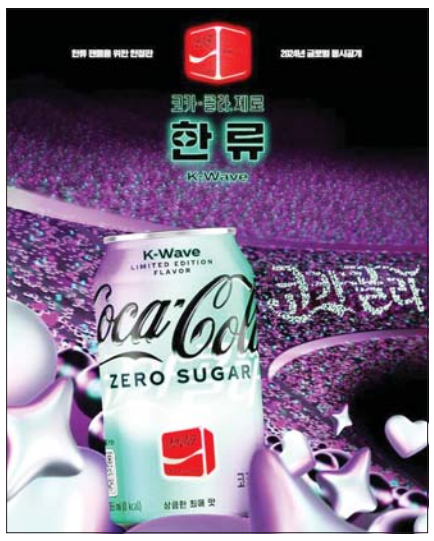
275억원이 투입되는 연구개발사업은 지역기업이 구동모터 소재·부품·모듈 고기능화와 국산화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 내재화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모터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대학이 적극 지원키로 했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韓 문화가 곧 'HIP'… 유통가, 'K-힙' 글로벌 마케팅 분주

코카콜라 'K-팝과 팬덤'서 영감
'코카-콜라 제로 한류' 글로벌 출시
미국·프랑스·스페인 등 36국 판매

농심 국립무형유산원과 함께
'K-무형유산' 프로그램 추진

대상 새로운 형태로 변형한 김치
DIY 김치 페이스트·스프레드 출시



코카-콜라 제로 한류 /한국 코카-콜라

김치스프레드, 종가DIY 김치 페이스트 /대상

국내 유통업계가 '힙'을 접목한 마케팅에 속력을 내고 있다. 힙은 고유한 개성과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신 유행에 밝고 신선하다는 내용을 뜻하는 영어단어다. 국내에서는 새로운 것을 지향하고 개성이 강한것을 의미할 때 '힙하다'고 사용한다. 특히 MZ세대 사이에서는 힙하다는 게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K푸드, K 팝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유통업계는 힙한 문화를 이끌 제품을 출시하는 데 주력한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국적 음료 기업인 코카콜라는 전 세계 K-팝과 팬덤에서 영감을 받아 '코카-콜라 제로 한류(K-Wave)'를 출시했다. 이색적이고 독창적인 맛과 디자인을 자랑하는 이번 제품은 코카-콜라의 글로벌 혁신 플랫폼 '코카-콜라 크리에이션'의 제품으로, 미국, 프랑스, 스페인, 싱가포르, 일본 등 전 세계 36개국에서 판매된다.

여기에 패키지 전면에 3D 코카-콜라 크리에이션 큐브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한글 '코카-콜라' 로고가 되어 영문 '코카-콜라 제로 슈거' 로고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한글 로고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창의적인 디자인이 눈에띈다.

아울러 코카콜라는 K팝 팬들을 겨냥해 K팝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 타이틀곡 '라이크 매직(Like Magic)'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기도 했다. 컬래버레이션에는 1세대 K팝 아티스트이자 프로듀서인 박진영과 함께 스트레이 키즈, ITZY(있지), NMIXX(엔믹스)가 함께했다. 제품 패키지의 QR코드를 활용하면 전 세계 K팝 팬들이 최애 아티스트와 나만의 'Like Magic'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볼 수 있는 AI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한국 고유의 무형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유통업계의 활동도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농심은 최근 국립무형유산원과 '함께하는 K-무형유산'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농심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무형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체험형 전통문화 팝업 행사를 개최하고, 이수자의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수립하기 위한 전통 굿즈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심은 신라면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K푸드 흥행에 성공한 국내 대표 기업이다. 이같은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국내 무형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글을 소재로 한 안성탕면 마케팅을 진행한 바 있다.

대상은 지난 1월 서구 식문화에 걸맞게 김치를 새로운 형태로 변형한 글로벌 전용 신제품 'DIY 김치 페이스트'와 '김치 스프레드' 2종을 출시했다. 미국과 유럽을 타깃으로 현지인들의 취식 행태와 트렌드를 반영해 개발된 제품이다.

종가 'DIY 김치 페이스트'는 김치를 샐러드처럼 즉석에서 만들 수 있도록 양념 형태로 구현했으며 오푸드(O'Food) '김치 스프레드'는 햄버거, 샌드위치, 비스킷 등에 발라먹는 잼 타입으로 김치를 빵과 곁들여 먹는 취식 형태를 반영해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CJ제일제당 비비고는 글로벌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브랜드를 새롭게 단장해 전 세계에서 'K-푸드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새로운 BI를 선보여 지난 달부터 국내를 시작으로 일본, 유럽, 동남아, 미국 등 순차적으로 제품 포장에 적용한다. 특히 이전에 영문만 표기했던 것과 달리 한글을 함께 넣어 한국의 브랜드라는 점이 각인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 고유의 K-푸드나 K-푸드의 맛을 접목한 새로운 제품이 해외에서도 출시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삼양식품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제58회 슈퍼마켓 트레이드쇼 재팬 2024'에서 프리미엄 건면 브랜드 '탱글'을 현지 정식 론칭했다. 삼양식품은 올해 전시회에서 지난해 수출용으로 개발한 프리미엄 건면 브랜드 '탱글'을 선보이고, '탱글 불고기크림파스타'와 '탱글 김치로제파스타' 2종을 소개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휴게소·급식 업계 '푸드테크'로 운영 효율화

로봇이 조리하고, 배식·세척까지 '척척'

외식사업 매장과 단체급식 업체들이 푸드테크 도입을 확대하면서 운영 효율화에 나섰다. 협동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매장의 운영 효율을 끌어올리고 외식업계 인력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풀무원의 푸드서비스 전문기업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최근 영동 고속도로 안산 복합 휴게소에 요리로봇과 디지털 무인배송 서비스 등 푸드테크를 접목했다.

1층 대형 식당가 코너에는 볶음 전문 요리로봇 '로봇웍'을 도입했다. 조리사들이 무거운 웍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조리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 조리사 수준의 맛과 품질을 구현한 것.

로봇웍은 조리 알고리즘 데이터에 기반해 전문 요리사들이 채소를 기름에 볶을 때 웍을 흔드는 모션과 웍에 불을 켜고 화력 조절을 하는 모션, 기름 투입 등의 과정을 자동화했다. 레시피에 따라 조리사가 웍에 재료를 넣으면 로봇웍이 기름을 투입하고 불을 켜고 화력을 조절해 볶음 요리를 완성하는 원리다.

로봇웍에서 볶은 재료는 마라탕, 볶음밥, 덮밥 등 총 8개 메뉴에 활용된다. 안산휴게소에는 2대의 로봇웍이 있으며, 1시간 기준으로 대당 약 25인분, 총 50인분을 조리할 수 있다.

고객이 주문한 꼬마김밥을 기송관을 활용해 수령하도록 하는 이색 푸드 서비스도 선보였다. 기송관은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 가벼운 물체를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해 탄생한 파이프 같은 관이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이 기송관을 푸드 서비스로 진화시켰다.

풀무원푸드앤컬처에 따르면 로봇웍, 디지털 무인 배송 서비스 등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해 발생한 매출은 안산휴게소 개장 초기인 2022년 5월부터 12월 동기간 대비 지난해 59.5% 증가했다.

삼성웰스토리 주요 자동화 솔루션 중 볶음로봇. /삼성웰스토리

풀무원푸드앤컬처
영동 고속도로 안산 복합 휴게소에 '로봇웍' 도입… 매출 59.5% 증가

삼성웰스토리
단체급식에 자동화장비 18종 구축
분당에 '플래그십 스페이스' 오픈

급식업계도 푸드테크 상용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지난해 단체급식 업계 최초로 조리로봇 전문코너인 웰리봇을 선보인데 이어 조리뿐 아니라 전처리, 배식, 세척의 전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첨단 자동화 장비 18종을 구축했다. 아울러 급식 서비스 전 과정에 개인화, 자동화, 지능화된 솔루션을 적용해 미래형 사내식당을 구현한 '플래그십 스페이스'를 분당 본사에 오픈했다.

플래그십 스페이스는 조리로봇이 음식을 만드는 '웰리봇 존', 무인 자동결제 형태로 간편식을 제공하는 '피키피커스 마켓', 취식 및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웰핏라운지', 다양한 푸드테크 기술을 테스트하는 '오픈랩' 등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웰리봇 존은 국·탕·찌개류 조리로봇과 튀김·누들 전용 조리로봇, 볶음요리 전용 오토웍이 추가로 적용된 조리로봇 전문 코너다. 10초당 1개 메뉴를 만들어 조리원 인력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키피커스 마켓은 무인 자동결제 솔루션이 적용된 간편식 코너로 특히 고객이 선택하는 간편식 제품을 자동으로 추적, 데이터화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 니즈에 부합한 간편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웰스토리는 플래그십 스페이스에 푸드테크 기반의 로보틱스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인 오픈랩도 마련해 자동화 솔루션 개발의 테스트베드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자회사 더테이스터블은 한화푸드테크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푸드테크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푸드테크는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의 주요 신사업 중 하나다.

한화푸드테크는 63레스토랑, 도원스타일 등 다양한 외식 브랜드 운영에 한화 로봇 전문 계열사인 '한화로보틱스'의 기술력을 접목해 푸드테크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내에는 판교 인근 R&D 센터를 설립해 푸드테크 개발 및 테스트 베드로 활용한다. 사측은 협동로봇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한화로보틱스의 기술을 조리를 포함한 식음 서비스 곳곳에 활용해 시장을 선점해 나갈 전략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에르메스 주방용품 '로켓배송' 구매 늘어

쿠팡, 40여개 명품 브랜드 입점

에르메스·베르사체 등 최고급 명품 브랜드 주방용품을 쿠팡 '로켓배송'으로 구매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배송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해외직구와 달리 다음날 배송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와우회원은 30일내 무료반품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고소영 도자기'로 널리 알려진 지노리 1735, 유명 셰프 고든 램지가 애용하는 프라이팬 브랜드로 유명한 드부이에를 비롯해 에르메스, 베르사체, 포트메리온 등 국내외 40여개 명품 브랜드 주방용품이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로켓배송에 입점했다고 17일 밝혔다.

쿠팡 프리미엄 키친 카테고리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는 에르메스, 지노리, 스켑슐트 등이 있다.

입점 브랜드 중에는 리델, 조세핀, 시도니오스, 자페라노 등 프리미엄 와인 글라스 브랜드도 포함돼 있다.

쿠팡에 입점한 명품 브랜드 주방용품 중 상당수는 이전에 해외직구로만 구할 수 있던 제품이다. 하지만 이제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로켓배송으로 구매 가능하게 되면서 쿠팡 고객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우선 로켓배송으로 구매 시 해외직구보다 빠르게 배송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프리미엄 주방용품을 해외직구할 경우 일반적으로 배송에 7일 이상 소요되지만, 로켓배송은 다음날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최빛나 기자

육수당, 지역별 대표국밥 알리기 나서

서울식국밥·한양식육개장 소개

국밥 브랜드 '육수당'이 팔도 진미 국밥이라는 브랜드 콘셉트에 맞춰 지역별 대표 국밥 알리기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육수당은 메뉴에 지역명을 넣을 정도로 전국 팔도를 대표하는 국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판매하고 있다. 이에 국밥으로 즐기는 전국 부루마블이라는 테마로 각 지역의 국밥 메뉴 알리기에 앞장선다.

첫 번째 시작 지역은 서울로 정하고 육수당에서 서울이 들어간 메뉴인 '서울식국밥'과 '한양식육개장'을 고객들에게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팔도마블 마케팅. /육수당

육수당의 서울식국밥은 소사골육수에 순대와 머릿고기 등 푸짐한 건더기와 다대기, 마늘 등을 넣어 다채로운 국밥맛을 즐길 수 있는 메뉴다. 한양식육개장은 진하고 매운 육수에 소양지, 파, 당면이 들어가 칼칼하고 얼큰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주총시즌 맞은 바이오·제약업계

유한양행, '회장직제' 부활… 삼성바이오, 수주 경쟁력 강화

유한양행
28년 만에 직제신설 정관 변경
조욱제 사장, 사내이사 재선임

삼성바이오로직스
5공장 건설, 내년 4월 가동 목표
ADC 치료제 등 역량 강화 박차

유한양행은 지난 15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유한양행 본사 강당에서 '제10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유한양행

바이오·제약 업계 주주총회가 막을 올렸다.

17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지난 15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유한양행 본사 강당에서 '제10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를 통해 유한양행은 회장·부회장 직제를 28년 만에 부활시킴으로써 기업 경영 체제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려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해당 안건은 약 95%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유한양행의 100년 넘은 역사에서 회장 자리에 오른 인사는 유한양행 창업주인 고(故) 유일한 박사와 연만희 전 고문 두 명뿐이었다.

유한양행의 회장·부회장 직제 부활은 주총 전부터 논쟁이 이어져 왔다. 이날도 본사 앞에서 정관 변경에 반대하는 트럭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월 14일 유한양행이 공시를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정관을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한 데 따른 반발이다. 일부에서 특정인이 회장직에 오르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유한양행은 정관 변경의 목적은 사업 목적 추가, 공고 방법 변경 등 다양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으로 직제 신설 또한 미래 지향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도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은 "회장·부회장 신설은 다른 사심이나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에 제 명예를 걸고 말할 수 있다"며 "회장과 부회장을 두더라도 임원의 일부로 직위만 존재하는 것이지 특권을 주거나 하는 것은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한양행 창업자 고(故) 유일한 박사의 손녀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는 "할아버지의 정신을 지지하기 위해 참여했다"며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강조했다.

유일한 박사는 1971년 3월 11일 작고할 때까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공익법인 유한재단을 설립하는 등 모범적인 기업 활동을 펼친 것으로 유명하다. 유일한 박사는 1969년에 이미 경영권 상속을 포기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정착시켰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사회 구성은 사외이사 수가 사내이사 수보다 많고 감사위원회제도 등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정착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한양행은 이날 주총에서 ▲2023년 재무제표·연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등 이사 선임 ▲감사위원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일부 변경 등의 안건도 통과시켰다.

특히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 사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김열홍 연구개발 총괄 사장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이정희 이사회 의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선임됐다. 신영재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김준철 다산회계법인 회계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재선임됐다.

또 유한양행은 보통주 1주당 배당금 450원, 우선주 460원의 현금배당(총 321억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내 대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난 1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올해도 쉽지 않은 경영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톱티어 바이오 기업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생산능력 ▲포트폴리오 ▲지리적 거점 확보의 3대 축 중심 성장 전략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공장 건설을 오는 2025년 4월 가동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 중이다. 급증하는 시장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 기간을 2025년 9월 가동에서 5개월 앞당겼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ADC 치료제 등 차세대 의약품 시장의 성장을 반영해 해당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3년 출시한 임시 발현 플랫폼 '에스-초지언트', 신약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 '디벨롭픽'등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시장에서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4개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신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는 서승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 간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저용량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경쟁 '치열'

종근당, '리피로우정' 5㎎ 품목허가
동국제약, 후발주자로 시장 진입
유한양행, 복합제 첫 개발 '포문'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시장에 저용량 아토르바스타틴 제제가 잇따라 등장해 제품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상지질혈증이란 혈액 중에 지질 또는 지방 성분이 과다하게 함유된 상태를 말하는데,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고밀도(HDL) 콜레스테롤혈증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17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지난 11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리피로우정' 5㎎에 대해 품목허가를 받았다.

종근당의 '리피로우정'은 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단일제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다. 종근당은 기존에 10㎎, 20㎎, 40㎎, 80㎎ 등 네 가지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품목허가를 통해 저용량인 5㎎ 용량을 추가해 제품군을 확장하게 됐다.

종근당은 해당 제품들의 용량을 다양화할 뿐 아니라 제형 축소를 통한 복약 편의성 증대, 국내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제 진료 데이터 확보, 안전성 입증 등을 진행해 아토르바스타틴 제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종근당에 따르면 리피로우정의 경우 지난 2023년 3분기 기준, 전년 대비 17.9% 성장한 307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성장세를 기록한 바 있다.

종근당이 출시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피로우정 3종. /종근당

이에 따라 제약 업계는 종근당이 저용량 아토르바스타틴 단일제를 응용한 복합제 개발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종근당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쓰이는 복합제로 '리피로우젯'을 출시하고 있다.

동국제약도 저용량 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 시장에 후발 주자로 진입하는 데 속도를 낸다.

동국제약은 지난 15일 식약처로부터 '아토반듀오정'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는 유한양행의 뒤를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에제티미브 성분과 '아토르바스타틴 5㎎'을 합친 복합제를 출시하게 된 것이다.

동국제약 '아토반듀오정'은 같은 성분·같은 용량을 제조하고 있는 유한양행 제1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해당 성분의 저용량 단일제를 기반으로 한 복합제 개발은 유한양행이 문을 열었다.

유한양행은 앞서 지난 2023년 식약처로부터 같은 성분의 저용량 단일제 '아토르바정' 5㎎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이를 복합제 '아토바미브정'에도 적용해 활용범위를 넓혔다.

유한양행의 '아토바미브정'은 에제티미브 성분 10㎎에 아토르바스타틴 5㎎을 더한 것이다. '아토르바스타틴 5㎎'이 더해진 복합제로는 유한양행이 처음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 업계는 저용량 단일제를 꾸준히 출시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저용량 복합제 역시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만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성과 복약 편의성을 두루 갖춘 복합제 개발은 제약 업계 주요 과제"라며 "특히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복용해야 하는 약 종류나 횟수가 많아 환자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저용량 복합제는 초기에 약물 복용량을 최저값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늘림으로써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특징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스타틴 계열 제제의 용량을 줄인 복합제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도 같은 이유라는 것이 제약 업계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LG생활건강 '임프린투', 세계적 디자인상

獨 iF 디자인 어워드서 '본상' 수상

LG생활건강이 브랜드 철학을 담은 제품 디자인으로 차별화한 고객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자사의 미니 타투 프린터 '임프린투'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제품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954년부터 열린 iF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적인 디자인 대회로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이 주관한다. 올해는 72개국에서 1만 여개의 작품을 출품했다.

LG생활건강은 임프린투가 작은 외형 디자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임프린투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95×61×78㎜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한 손에 쥘 수 있다. 휴대용 타투 프린터라는 제품 주제를 디자인에 그대로 구현한 것이다.

'임프린투' /LG생활건강

제품 겉면에는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고 전원처럼 꼭 필요한 버튼만 남긴 것도 특징이다. 또 사용자의 개성을 상징하고 눈에 잘 띄는 네온 옐로우 색상과 매끄럽고 둥근 형태가 적용됐다.

임프린투는 스킨 모드와 오브젝트(사물) 모드로 구성된 '듀얼 인쇄 모드' 기능을 갖춰 피부, 종이, 의류 등 어느 표면에나 최적의 결과물을 인쇄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돋보인다는 평가다. /이청하 기자

동아제약, 새 모델 '라이즈'와 소비자 공략

박카스맛 젤리 모델 선정

동아제약이 다양한 마케팅으로 소비자 접점을 늘리고 있다.

동아제약은 박카스맛 젤리의 새로운 광고 모델인 가수 라이즈와 함께한 신규 광고를 방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광고 슬로건은 '내 안의 텐션을 라이즈'다. 동아제약은 광고에서 지친 라이즈 멤버들이 박카스맛 젤리를 먹고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그려냈다.

박카스맛 젤리와 라이즈의 조합이 어우러진 이번 광고는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이청하 기자

100+

2024 100세플러스 포럼 시즌1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2024.03.20(수)

14:00~17:10

서울 명동은행회관2층국제회의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 컬리지 수료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경제유튜브채널 <삼프로TV>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수석부사장
저서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
KBS1라디오 <은퇴설계, 오늘부터> 출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 행사개요

- **행사명:**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주 제:**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 **일 시:** 2024년 3월 20일(수) 오후 14:00 ~ 17:1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등 록:** https://www.metroseoul.co.kr(메트로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 **문 의:** 100세플러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 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13:30~14:00 VIP Tea 타임)
축사	14:00~14: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개회사	14:00~14:20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1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전망
강연1	15:10~15:50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강연2	15:50~16:3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부동산 전망과 투자전략
강연3	16:30~17:10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 : 고령화 시대, 재테크 전략
폐회	17:10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예산시장 지원방안 모색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충남 예산시장에서 청년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17일 소진공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지난 15일 예산에 있는 예산시장을 방문해 청년상인들의 운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별상인 및 예산시장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박성효 이사장이 간담회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수은,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에 차량 13대 후원

한국수출입은행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를 통해 전국 13개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에 차량 13대를 후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진숙 부평 큰사랑지역아동센터 센터장(왼쪽부터), 안종혁 수은 수석부행장,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아 포즈를 취했다. /수출입은행

한신대-로보케어, SW대학 운영 등 산·학협력 강화

한신대학교는 13일 경기캠퍼스 장공관 1318 회의실에서 ㈜로보케어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성공적인 운영과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협정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왼쪽 두 번째) 강성영 한신대 총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신대

광동제약,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 전개

광동제약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돕고 헌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앞장선다. 광동제약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광동제약 본사에서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 의미를 더했다. /광동제약

사이버한국외대
23일 오프라인 콜로퀴엄 개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는 오는 23일 학내 사이버관에서 오프라인 콜로퀴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오프라인 콜로퀴엄은 당일 오전 11시 김보균 교수의 서비스 영어 커뮤니케이션 주제 강연과 오후 1시 김태은 아나운서의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주제 강연으로 두 차례에 나누어 진행된다.

콜로퀴엄 참석은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온라인 사전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이현진 기자 lhj@

오비맥주, 'MLB 서울' 후원… "카스만의 에너지 선사"

단독 주류 후원사 참여
'카스 라이트' 부스 운영

오비맥주 카스가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MLB 서울 시리즈(이하 서울 시리즈)'에 단독 주류 후원사로 참여하며 스포츠 팬과의 만남에 나선다.

이번 서울 시리즈는 MLB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개막전인 만큼, 국내외 야구팬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카스는 17일부터 21일까지 고척스카이돔 경기장 내·외부 광고, 소비자 참여형 부스 운영, 주류 판매 등을 통해 현장 관람객뿐만 아니라 경기를 지켜보는 국내외 스포츠 팬에게 카스만의 즐거운 에너지를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카스는 '서울 시리즈' 기간 고척스카이돔 3루 출입구 앞 공간에서 '제로 슈거' 트렌드를 반영해 최근 리뉴얼 출시된 '카스 라이트'의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부스를 운영한다. 이벤트는 야구공을 던져 선반

오비맥주가 MLB 서울 시리즈에 후원사로 참여한다. /쿠팡

위 조형물을 맞추는 방식의 '투구' 게임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응원 타월, 페이퍼 글라스, 응원 부채 등 경기 관람의 즐거움을 북돋아 줄 다양한 카스 브랜드 굿즈들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경기 관람의 즐거움을 더해줄 다양한 카스 제품도 경기장 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최근 젊은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인스타그램 등 SNS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야구장 별 일명 '야구푸드' 정보가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카스는 고척스카이돔의 인기 '야구푸드'와 함께 경기를 더욱 즐겁고 짜릿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우러지는 카스 프레시, 카스 라이트, 카스 0.0, 카스 생맥주 등 다양한 라인업의 맥주를 경기장 내 매장 곳곳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최근 '제로 슈거', '저칼로리' 등 라이트 맥주의 매력을 강조해 새로워진 카스 라이트의 리뉴얼 출시를 기념해 2층과 3층 외야석 입구 앞 공간에서 카스 라이트 시음 행사도 연다.

한편,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는 17~18일 이틀간 '키움 히어로즈', 'LG 트윈스', KBO 리그 주요 선수들로 구성된 '팀 코리아' 등 국내 팀과 MLB 팀과의 스페셜 경기가 진행되며, 20일~21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LA 다저스의 MLB 2024 시즌 공식 개막 2연전이 펼쳐진다. 카스는 전 일정에 참여해 경기장 곳곳에서 소비자와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현대백화점면세점, '2024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커뮤니케이션 부문 2년 연속 수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노력 인정받아"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독일 국제포럼디자인협회가 주관하는 '2024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2년 연속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노력과 창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4년부터 시작된 독일의 권위있는 디자인 상으로, 미국 'IDEA 어워드',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고 있다.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작 '플라스틱 비닐 가방 재활용 프로젝트, 비닐!' /현대백화점

올해 수상작인 '플라스틱 비닐 가방 재활용 프로젝트, 비닐!'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등에서 진행한 친환경 업사이클링 전시 '지속 가능한 원더랜드' 작품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업계 최초로 친환경 종이 쇼핑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 면세점의 비닐 쇼핑백 재고를 활용해 소파, 파라솔, 비치볼, 튜브, 바닥재 등 다양한 오브제와 가구로 재탄생시켰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자원 선순환', '친환경'을 모티브로 작품 활동 중인 김하늘 가구디자이너와 함께 폐기를 앞둔 비닐 쇼핑백을 고온 압축 가공해 가죽이나 패브릭과 유사한 소재로 변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제작된 오브제와 가구는 현대백화점면세점 비닐 쇼핑백의 붉은 스트라이프 디자인을 재치있게 활용한 패턴으로 디자인돼 눈길을 끌었다.

/최빛나 기자 vitna@

딥브레인AI,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 선봬

합성영상 등 지능형 범죄 대처

딥브레인AI가 지난 15일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을 선보였다. 경찰청은 이를 활용해 총선을 겨냥한 선거 범죄를 비롯한 피싱 범죄와 합성 성착취물 범죄 등 딥페이크 기반 지능형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딥브레인AI의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은 ▲종합탐지 ▲음성탐지 2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이미지와 영상, 음성 탐지를 지원한다. 딥페이크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탐지모델 ▲탐지구간 ▲탐지인물 등을 설정하면 진위여부를 즉각 판별한다.

이미지와 영상은 픽셀 단위로 분석하며, 음성은 주파수와 시간, 노이즈 등 다양한 조작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탐지에 통상 5~10분 가량 시간이 소요 되며 판별이 완료되면 변조율과 합성유형 등 범죄에 사용된 기술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seoh@

인사·부음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대변인 손주형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한경선

◆**교육부** △대변인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 지역인재정책과장 윤소영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 이용학 △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김성근 △지역인재정책과장 박성하

◆**질병관리청** ◇과장급 승진 △위기분석담당관 유효순

▲신형임씨 별세, 송형일(전 광주광역시의원)씨 모친상=17일 오전, 광주시 서구 매월동 국빈장례문화원 201호, 발인 19일 오전 9시30분. 062-606-4000

▲주명수씨 별세, 주형환·두선·남선·하영·윤경·윤하·금옥씨 부친상, 소명철·이학용(대한테크 대표)·현성철·공병순·박고완씨 장인상=16일 오후, 경남 김해시 금관대로910번길 4(풍유동) 김해시민장례식장 특401호, 발인 18일 오전 10시. 055-900-4000

▲송금의씨 별세, 홍종숙(증평군의회의원)씨 모친상 = 16일 오후 6시50분, 증평 대한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043-836-7002

스타벅스코리아
'별빛추억 공모전' 개최

스타벅스코리아가 고객들과 스타벅스의 반짝이는 추억을 찾는 '별빛추억 공모전'을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스타벅스 코리아 개점 25주년과 더불어 스벅TV의 개국 5주년을 함께 축하하고자 진행되며, 우리나라 스타벅스와 함께한 추억을 갖고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스타벅스 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 'Starbucks Korea'를 구독하고, 별빛추억 공모전 이벤트 영상 댓글란에 '스타벅스 25주년 축하해' 문구를 포함한 댓글을 작성한 후, 더보기란에 있는 설문 링크에 접속해 사연을 접수하면 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코웨이
정수기·비데 'KPEI' 1위

코웨이가 한국마케팅협회에서 주관하는 '2024 한국산업의 구매안심지수(KPEI)' 조사에서 정수기 및 비데 부문 1위에 올랐다.

17일 코웨이에 따르면 정수기 부문은 초소형 크기와 뛰어난 위생성으로 누적 판매 100만 대를 돌파하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콘 시리즈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비데 부문에선 위생 관리가 편안한 룰루 비데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코웨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웨이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제품 개발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주력하며 신뢰도 1위 브랜드 위상을 굳건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해외교환 장학생 모집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올해 가을학기 파견 예정인 제31기 해외교환 장학생 25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음달 24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해 서류 심사와 온라인 면접을 거쳐 총 250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내 4년제 대학생 중 모교로부터 해외교환 학생 자격을 획득하고 재단에서 규정한 경제적 여건과 성적 요건을 충족한 학부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최종 선발된 장학생은 2024년 가을학기 파견을 위한 학업 및 생활 지원 명목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선발 요강은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래에셋은 지난 2000년 재단 설립 후 해외 교환 장학생을 비롯해 국내장학생 3880명, 글로벌 투자 전문가 장학생 122명 등 그동안 1만 3081명의 장학생을 지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아이디어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로 처벌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저작권과 관련해 '아이디어(idea)는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설명 때문인지 '아이디어'는 별다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아이디어 등의 탈취에 대해서 이를 부정경쟁행위 중의 하나로 규정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이디어 등의 탈취에 관해 정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조항은 제2조 제1호 (차)목이다. 해당 규정에서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는 행위(이하 편의상 '아이디어 등 탈취')'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위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부정경쟁행위는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시에 새롭게 신설됐다. 과거 아이디어가 이른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라 저작권법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해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개정 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 중소·벤처기업 등의 아이디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신설하게 됐다.

위 아이디어 등의 탈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논의 및 협의 과정) 또는 거래과정(계약 체결 전후)에서 알게 된 또는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② 그 제공된 목적에 위반해 ③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한 경우라야 하고, ④ 아이디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위 요건들 중 '경제적 가치를 갖는 아이디어 정보인지', '아이디어 정보의 부정한 사용인지' 등은 경쟁관계의 존재 여부나 신뢰관계에 어긋나는 사용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위 아이디어 등 탈취의 부정경쟁행위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부정경쟁행위로서 아직 그 개별적 기준에 대한 법리가 충분히 정립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지만 부정경쟁행위의 도입을 통해 타인의 아이디어 등 사용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게 된 만큼 실무에서도 위 부분을 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들 중에는 종래와 달리 위 부정경쟁행위(아이디어 등 탈취)를 포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실무자로서는 아이디어 등의 사용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창피한 국민대표에 표 줄 수 있을까

기자 수첩
서 예 진
〈정치경제부〉

누군가에게 과거 일기장은 추억과 창피함을 동반할 것이다. 기자 또한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페이스북은 나에게 원치 않는 친절함을 베푼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상단에 오늘자 과거 글을 띄워주는 친절함 말이다.

그래서 잠시 짬을 내 페이스북에 들어가 과거 글을 읽어보고 별 의미 없는 글이라면 그냥 지우거나 비공개로 돌리는 게 루틴이 됐다. 과거 글이 거의 '친구공개'인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일 것이다. 만인에게 창피하지는 않기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정치권에 들어온 이들 중에선 이런 다행이 작용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다.

어떤 후보는 만인이 볼 수 있도록 '막말'을 자신의 담벼락에 전시했었고, 어떤 후보는 유튜브 세상에서 막말을 했다. 만인이 볼 수 있도록 말이다. 심지어 어떤 이는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음에도 극언을 입에 담는 바람에, 인터넷 세상을 조금만 여행해도 온갖 막말을 만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막말에 정치권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고민에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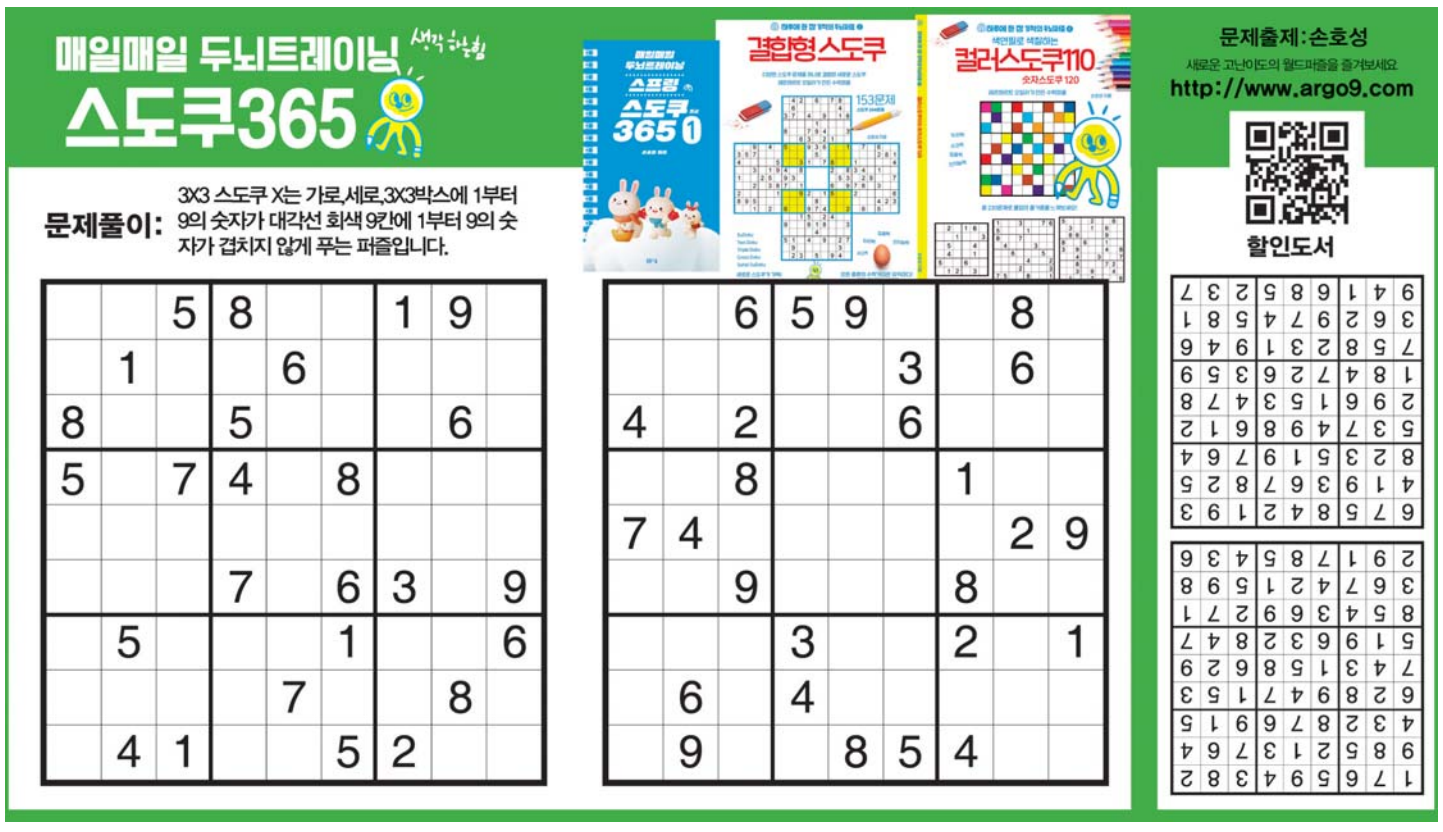
아마 이런 고민일 것이다. 정치인이 되기 전 막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거의 그와 현재의 그는 같은 사람일까. 사람은 정말 깊이 반성하고 달라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반성이 유권자에게 와닿을 것이며, 이것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서로 경쟁하던 '막말 후보'들을 쳐내고 있다. 정계 입문 전에 했던 발언으로 인해 현재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후보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계 입문 후에 했어도 현재의 자신은 그때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공천 취소가 '과거의 막말로 현재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천 취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당에서는 후보로 낼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다. 정당 소속으로 출마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리고 공천권자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 그들은 국민을 대표하러 나왔다는 점이다. '저 사람이 국민의 대표라니, 정말 창피하다'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이가 후보로 나선다면, 유권자들이 납득하고 표를 줄 수 있을까. 지지층과 유권자는 '표 주는 자판기'가 아니다.

/syj@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18일 (음 2월 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자손이 방문하니 하루가 즐겁다. **48년생**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말고 순서를 잘 지켜라. **60년생** 편재偏財의 기운이니 큰돈이 들어오겠다. **72년생** 새로운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능력 발휘. **84년생** 오늘부터 수영을 배우기 시작.

37년생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된다. **49년생** 상대의 단점을 말하기보다 칭찬을 하면 서로 유리. **61년생** 꽃보다 아름다우니 자신감을 가지자. **73년생** 조상님의 제사에 참석하면 좋을 듯. **85년생** 자유로이 흐르는 물처럼 지혜가 솟는다.

38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날. **50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부디 자중자애하길. **62년생** 망설임은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준다. **74년생** 결과가 좋아야 과정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86년생** 돈과는 소용없는 일만 벌인다.

39년생 배우자의 소중함이 느껴지는 날. **51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다. **63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황이 시작된다. **75년생** 모든 일에 인내하면 결국 나에게 득이 발생한다. **87년생** 먼 친척의 상복수.

40년생 깊은 물에 고기가 모이는 법. **52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으니 전진. **64년생** 흘러가는 대로 유유히 하루를 보내자. **76년생** 혼자 사색도 좋겠지만 책을 보고 소통을 해보라. **88년생** 온고지신(溫故知新)을 게을리하지 않음.

41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야 실수가 없다. **53년생** 가야 할 길은 먼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65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길하다. **77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주변의 환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침. **89년생** 노동의 힘을 소모하는 날.

42년생 한여름에 솜옷이 생각나니 건강 유의해야. **54년생** 주식은 자기의 지식과 감각으로 투자하기도. **66년생** 큰집 작은집이 아니라 적당한 규모의 집이 행운을 준다. **78년생** 한발 물러서 보면 나쁜 상황은 아니다. **90년생** 승진으로 감사.

43년생 집착하지 말고 넓게 생각하자. **55년생**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놓아야 한다. **67년생** 침 뱉은 우물물 다시 찾는다. **79년생** 말만 잘하는 사람을 믿기보단 말없이 실력 있는 사람을 따르자. **91년생** 가진 자의 교만은 추락의 예고이니 겸손.

44년생 원칙을 잊으면 빚을 지게 되니. **56년생** 행복의 원천은 가정의 평화. **68년생** 근거도 합리성도 없는 자신감은 위험요소. **80년생** 시기 질투로 친구에게 이간질하게 하면 벌은 내가 받는다. **92년생** 모든 이치에 생극제화(生剋制化)가 있다.

45년생 서로의 기운을 주고받는 게 인생사인데. **57년생** 풍수에서 배산임수는 명예 재물을 의미하는 것. **69년생** 다 좋을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81년생** 행정직에 적합하니 도전해도. **93년생** 믿는 자에게 복이 온다 했으니.

46년생 꿈에서 조상님을 뵈었다. **58년생** 은퇴 설계를 미리 하여 노력의 결과가 생긴다. **70년생** 대문이 작으면 복이 잘 나가지 못한다. **82년생** 자좌관고(自坐官庫)로 여장부의 기상이니 해낸다. **94년생** 돈에는 발이 달렸으니 소중히 여겨야만.

47년생 다정도 병이니 배우자에게 간섭은 피하라. **59년생** 오너를 비난하기보다 말을 경청해보시라. **71년생** 조금 더 서둘러야 노후 걱정이 덜하다. **83년생** 차량 음주는 정말 하지 말아야. **95년생** 남의 단점은 잘 보이나 내 단점은 안 보려 하니.

김상회의 四季

결혼 인연

혹여 자신의 타고난 사주가 좋지 못할 때 배우자의 좋은 팔자만 한 것이 없다. 그래서 개운의 절대 호기는 바로 결혼이다. 배우자 운이 좋은 것도 자기 사주에 타고 태어나는 것이기도 해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항상 논란이 되듯이 결혼으로 인한 개운 역시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가 의문이다. 옛날에는 아무리 가난해도 짚신도 짝이 있다고 했듯 각자 인연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가진 것 없이 부부가 되어도 각자의 복에 따라 살림도 번성하기도 하고 상대방 배우자와의 연이 잘 펼쳐지는 것을 기대할 만도 했다. 요즘은 결혼 인구가 줄어서인지 궁합이나 혼인 문제를 묻는 상담도 예전과 같지는 않다. 그래도 남녀 간의 연애나 부부간의 문제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손가락 안에 드는 문제에 속한다.

한 번은 어떤 아가씨가 왔는데 애인이 총각인 줄 알고 만났는데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이다. 남자도 이제는 이실직고하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단다. 아가씨는 남의 가정을 깨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남자는 어쩌다 한번 실수로 아이가 생겼고 그로 인해 결혼했단다. 싸움도 잦고 너무 괴로운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람피우는 남자의 진부한 핑계이기는 한데 아가씨와 남자의 팔자를 살펴보니 서로 만나야 하는 오행의 구조이기는 했다. 남자는 사주에 을목乙木 일주로 자기를 생해 주는 오행인 수水 인성印星이 없는데 아가씨의 일간이 수성水性에 병화丙火가 떠 있다. 출수부용出水芙蓉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의 형상이다. 이는 여자의 내조로 인해 남자는 머지않아 상류사회에 진입도 가능하다. 그런데 아내 자리를 나타내는 토성이 연지年支와 시지時支에 있으니 두 여자 인연이 있다. 이런 것을 두고 결혼 인연으로 봐야 할까?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9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9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 거주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없애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문턱을 낮춘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 현재 서울에 사는 임산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산부 교통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다. 시와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6개) 중 하나를 택하면 포인트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바우처 지원일~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이라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지원 희망자는 '서울맘케어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북부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운영

서울시, 40병상 추가 총 1364병상

서울시 북부병원은 이달 18일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간호조무사·병동지원인력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7개 시립병원에서 1324병상 규모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번 북부병원에 40병상을 추가하면서 총 1364병상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서울의료원(404병상) ▲보라매병원(417병상) ▲동부병원(173병상) ▲북부병원(81병상) ▲서남병원(102병상) ▲어린이병원(112병상) ▲서북병원(35병상)이다.

시 관계자는 "북부병원은 노인환자나 재활중심의 아급성기(회복기) 환자가 많아 재활전문치료를 강화했다"며 "장기적인 간병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환자와 가족들의 고충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한신대 '창업보육센터 평가' 우수대학 선정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창업보육센터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대학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257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기관운영실적, 사업운영실적, 외부기관 협업사례, 입주기업 만족도, 지원 실적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한신대 창업보육센터는 1999년 11월에 개소해 경력, 네트워크, 전문성을 보유한 24개 (예비)창업자들에게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형태의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류승택 창업보육센터장은 "이번 성과는 그동안 창업보육센터가 축적해 온 전문적 지원 역량과 센터에 입주한 창업기업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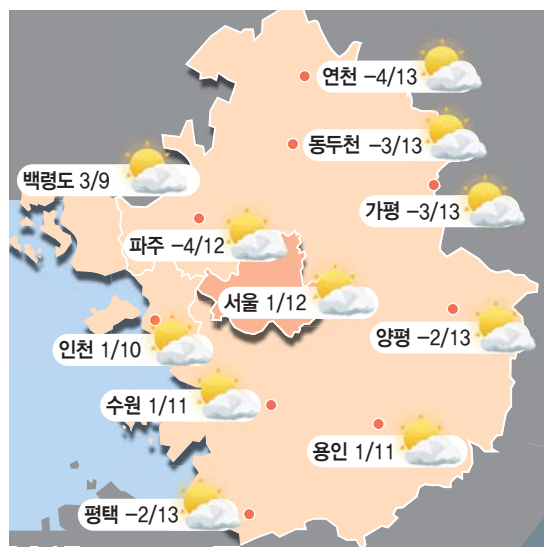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39 | 해짐 / 18:42

3월 18일 (月)
음력 : 2월 9일

수도권 날씨
1 ~ 12 ℃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80억 적자 리버버스 중단하고 임신준비 프로그램 예산 확대를"

서울시민, 오세훈 시장에 요구

"한강 리버버스, 적자 가능성 확실 업적 위주 아닌 시급정책 마련을"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에 공공의료 담당 병원 건립해야"

리버버스 운항노선 및 시간. /서울시

서울시민들이 한강 수상버스 사업 중단,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에 공공병원 설치, 임신 준비 프로그램 예산 확대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정과 관련된 비전을 제시하는 창구에 리버버스 사업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한강 수상버스 사업 중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리버버스 사업은 시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강 마곡~잠실 28.9km 구간에 수상 대중교통 수단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212억원의 시 재정을 투입해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총 7개 선착장을 조성하고 평일 하루 68회, 주말과 공휴일 일 48회 한강 수상버스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리버버스 운영 비용 추계서에 의하면, 한강 수상버스는 2024~2029년 약 80억여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원인 A씨는 "출퇴근시 하루 몇 명이 리버버스를 이용하겠냐"며 "적자 가능성이 확실한 교통 정책보다 지금 운영하는 대중교통 지원에 대한 연구를 더 하라"고 일갈했다. 이어 "한강 수상버스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수질 오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선착장을 건설하면 한강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리버버스 운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업적 위주의 정책이 아닌 지금 당장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해달라며 해당 노선에 수상버스 대신 일반 시내버스를 3대 더 증편해 대중교통 혼잡도를 줄이라고 조언했다.

시는 "리버버스는 교통수단 다양화와 쾌적하고 편안한 이동 등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도입 초기엔 일부 재정 지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수상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에 공공병원을 건립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원인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으려는 의사들의 파업을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노원구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에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병원 유치를 건의하게 됐다"며 "바이오의료단지와 연계된 연구 중심 병원만이 아닌 공공의료를 담당할 병원을 만들어달라"고 간청했다.

시 동북권사업과는 "현재 기업 유치 및 전략적 개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공공병원 유치에 관한 의견도 참고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B씨는 "임신 준비를 위해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산전검사를 하려고 예약을 시도했는데 매번, 매달 실패했다"며 "오픈런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직장인이다보니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시는 '서울시 남녀 임신 준비 지원사업'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신혼부부와 가임기 남녀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덴마크 오덴세와 로봇 활성화 협약

북유럽 로봇 박람회 'R-24' 참가

서울시는 이달 13일 북유럽 최대 로봇·드론 박람회인 'R-24'에서 덴마크 오덴세와 '로봇산업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덴세는 남덴마크대학과 유니버설 로봇 등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로봇 클러스터를 조성해 세계적인 로봇산업 선도도시가 된 지역이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양 도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로봇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로봇 서비스 대중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로봇 벤처·스타트업 집적단지인 수서 로봇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정책 사례를 교류하고 올해 개관을 앞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에 덴마크 로봇클러스터의 기획 전시를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오덴세, 로봇 생태계 성장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 /서울시

정영준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로봇산업이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인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해 로봇 분야의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에티오피아, 에너지 수출 성공으로 10억달러 외환소득 달성
▲아이슬란드 레이캬스 반도서 또 화산 폭발 /사진 뉴시스

▲이스라엘 하마스, 3단계 휴전안 부상
▲WHO, 이 군 라파공격 중지 요구 "120만 난민 갈 곳 없다"

▲美 백악관, '애틀랜타 총격' 3주기 성명
▲日 게이샤 거리 막는다…사진 찍고 담뱃재 넣는 관광객들 /사진 뉴시스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5393호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유통가
한국 고유의
'K-힙' 마케팅
L1

제약바이오 주총시즌
유한양행
'회장직제' 부활
L2

"금융으로 행복을… 공정하고 신뢰받는 금융모델 만들 것"

새벽을 여는 사람들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정 운 영 이사장

금융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좋은 수단과 행복이 되기 위해 정운영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금행넷)이사장(53)은 사단법인을 설립했다. 금융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돈'으로 고통 받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이라는 산을 넘을 수 있도록 정 이사장은 오늘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정운영 이사장은 금융업계에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교육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정운영 이사장은 금융감독원 은행·비은행분과 자문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분야 옴브즈만 위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심의위원, 서민금융진흥원 교육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공정금융추진위원, 금융위원회 정책서민금융 태스크 포스(TF) 위원, 경기도 지역경제교육센터 센터장,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와 국제금융소비자학회(이사), 한국금융소비자학회(이사), 한국경제교육학회(이사), 한국금융교육학회(이사) 등 현장실무와 학계활동 등 명함이 많다. 명함이 많은 만큼 일 욕심도, 꿈도 많은 '워커홀릭'(개인사보다 일을 제일 우선시 하는 사람)이다.

금행넷은 우리 삶 속에서 금융이 '인풋(input)'이라면 '아웃풋(output)'은 행복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 2016년 설립됐고 같은 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정식인가를 받았다.

정 이사장은 "우리사회의 금융에 대한 신뢰감 회복이 절실한 상태"라며 "우리 시대의 금융은 지속가능하고 다같이 잘사는 공동체 사회를 위한 좋은 수단이어야 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를 위한 비영리법인(NPO)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NPO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후원과 봉사 등을 자진해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정 이사장은 "과거에는 우리사회에 기부나 봉사에 대한 신념이 높았지만, 현재는 자기의 역량을 활용하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고,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라는 재무적인 보상만 생각하게 되다 보니 봉사와 기부의 의미도 변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어떤 탓이라고 보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으로 남과 비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낸 슬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순수한 봉사보다는 이력에 활용하거나 코스프레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NPO의 역할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시도들을 하면서 이를 잘 발전시켜 정부나 기업들이 그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사회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보장이 이뤄져야 하는데 영리 수익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의 비용 지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최소한의 지원과 기업과 시민들의 기부가 뒷받침해준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실험적이고, 빛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영 금행넷 이사장(두번째줄 왼쪽 네번째)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임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개최된 '2023 경제교육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운영 금행넷 이사장.

금융교육,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사회 속 '금융 신뢰감' 회복 절실해
소비자 위한 사단법인 '금행넷' 설립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전용앱 개발
취약계층 금융 역량 채워주고파
훌륭한 젊은 NPO리더 양성 목표

초창기 NPO는 희생정신 없이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 이사장은 보람된 순간이 더 많아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지원하는 자산관리 지원을 받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융복합금융교육과 1대 1 상담멘토링 서비스를 위한 전용앱 개발이다.

그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금융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족한 '금융 역량'을 채워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경제교육은 사람살리는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후계 양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사회가 점점 효율적인 것이 강조되기 때문에 밑에 세대에서 맡아서 할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대학 졸업 후 20대 중반부터 이런 일을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 전후에 NPO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졸업 후 훈련을 거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게 하는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역량있는 훌륭한 젊은 NPO리더를 지원하는 것이 꿈이다"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공정한 금융을 제공하는데 더 전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초창기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드웨어(사무실, 인력충원 등) 구축보다는 사람들과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도를 할 수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하드웨어 구축을 준비하고 있고, 금행넷 10년을 맞이할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행넷이 NPO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향후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금융'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잘 활용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의 10년이 금융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부, 금융당국, 금융회사들과 소통해 역량을 더 키워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쇼트트랙 김길리, 첫 세계선수권 1500m 金 /사진 뉴시스

▲'손흥민 침묵' 토트넘, 풀럼에 0-3 완패

▲'황희찬 결장' 울버햄튼, FA컵 8강 탈락

▲오타니 상대 'KK'…키움 후라도, 다저스전 4이닝 4실점

▲북한, 일본 꺾고 17년 만에 U-20 여자 축구 아시안컵 우승

▲김민재, 3경기 연속 선발 제외 /사진 뉴시스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1학년이 된 딸에게

빨리 커라 빨리 커라 시간을 재촉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널 보니…
너, 왜 이렇게 빨리 컸니?

바쁜 아침이란 핑계로 재촉하듯 널 등교시키고
해 질 무렵에야 널 만나 미안함 가득한 저녁,

"엄마, 오늘 학교 진짜 재밌었어. 엄마도 재밌었어?"

늘봄학교 끝나고 해맑게 달려와 안기는 너의 미소는
미안해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려서
엄마 마음이 뭉클해지곤 해.

늘 부족한 엄마에게 과분한 행복이 되어주는 너.
따스한 봄날 같은 너의 존재에 감사하며
어제보다, 더 많이 사랑할게

너라서 참 고맙다
늘 봄 같은 우리 딸

아이들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이 함께 만드는 '돌봄 공백 없는 세상'
KB금융그룹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총 1,250억 원을 지원하여
2,256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신·증설하였고 2027년까지 25개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B 금융그룹